

어린이와,  
어린이였던,  
당신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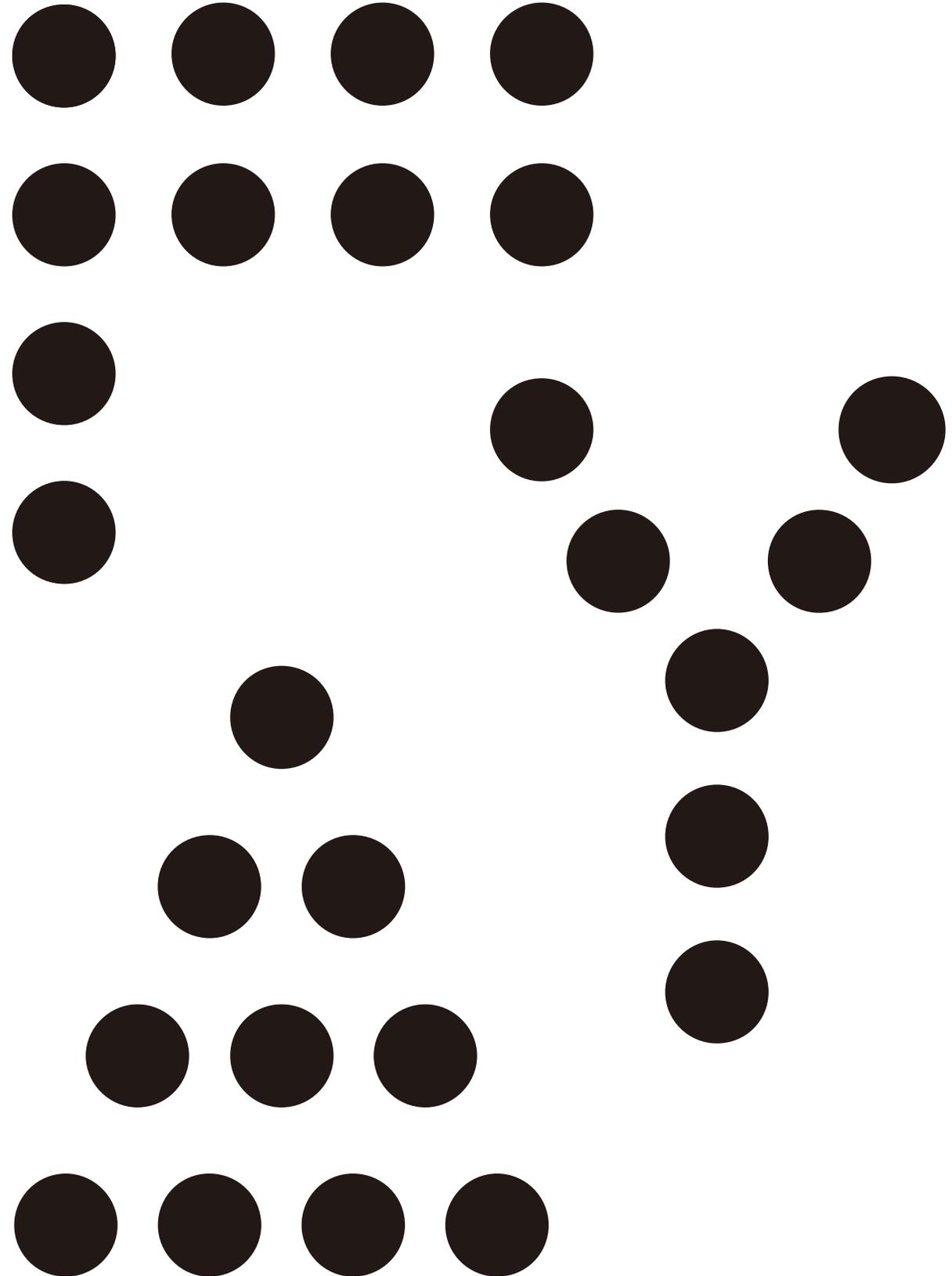


어린이와,  
어린이였던,  
당신을 위해



본 작품집은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들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을 담고 있습니다.



들

어

가

며



## 들어가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품 제작을 위한 예산 지원을 넘어, 작품이 지속적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작품집은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29개 작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작품의 소개글과 더불어 비평문, 현장 전문가의 의견, 통계자료를 수록한 본 작품집이 오늘의 어린이·청소년 예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기록이자, 어린이·청소년 예술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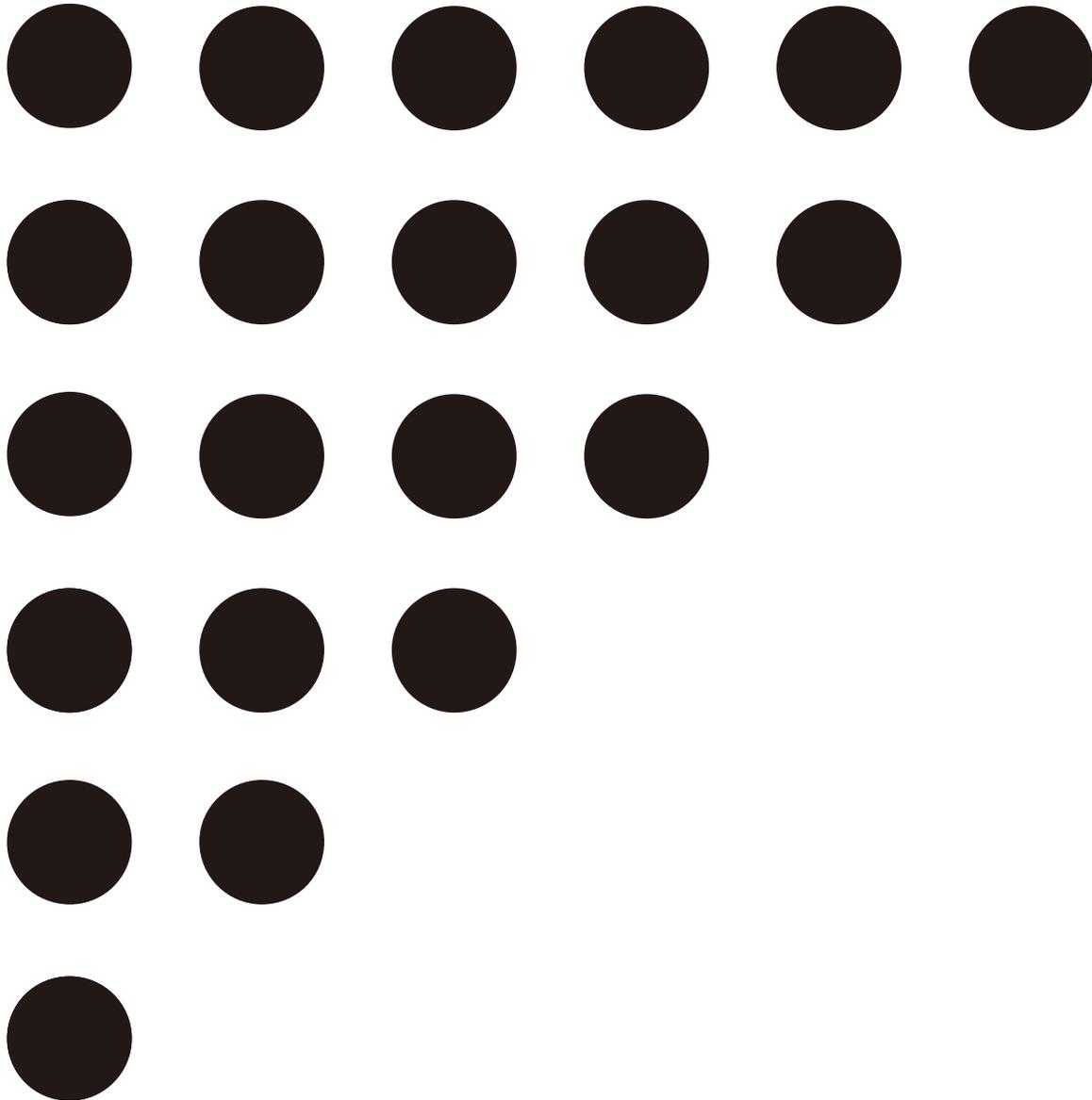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신작, 2차제작 작품이 안정적으로 제작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관객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춘 작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신작제작’ 작품에 7억 원, ‘2차제작’ 작품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29개의 어린이·청소년 예술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극장인 아르코꿈발극장과 연계함으로써, 작품의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더 많은 어린이·청소년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더했습니다.

목

차



들어가며

005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이란

I. 연극/뮤지컬



동그라미공방

013 <랩>



해의 아이들

019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창작집단 인사리

025 <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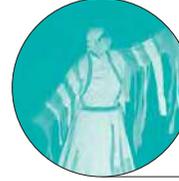
창작집단LAS

031 <고구마밭 그 랩터>



정Tree프로젝트

037 <어느날 납작해진 아이와  
끝으로 달려가는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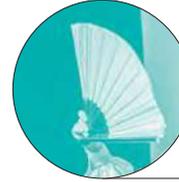
아트플랫폼 동화

043 <나무의 아이>



시작과끝

049 <저승할망>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055 <셋!>



극단즐거운사람들

061 <나무가 있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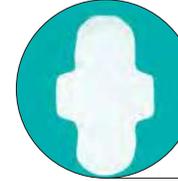
극단21

067 <나무 속 이웃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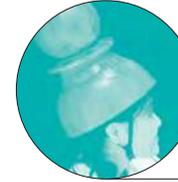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

073 <거짓말쟁이 마녀가 돌아왔다>



작은극장H

079 <우리의 빨강>



장이주(프로젝트그룹 응시)

085 <아라의 세계>



극단 치악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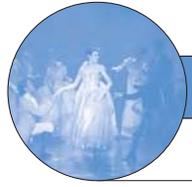
091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극단 성시어터라인

097 <동화동경>

## II. 무용

	서울발레시어터	105	〈핑크문의 요정들과 신, 데렐라〉
	댄스리서치앤프랙티스랩	111	〈키즈 도서관, 춤추는 기호 여행〉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댄스	117	〈부엉이의 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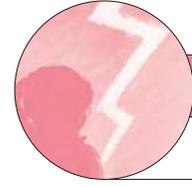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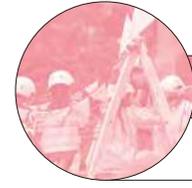
	김하얀새	123	〈몽글몽글 꿈 공장〉
	고블린파티	129	〈리듬식당〉

## III. 음악, 전통예술

	오페라팩토리	137	〈빨간모자와 늑대〉
	영아초컴퍼니	143	〈신비한 시간여행: 잃어버린 세종의 보물을 찾아라!〉

	풍물패칭음	149	〈풍물이 동동-소고라서 좋아!〉
	연희공방 음마깡깡	155	〈괴물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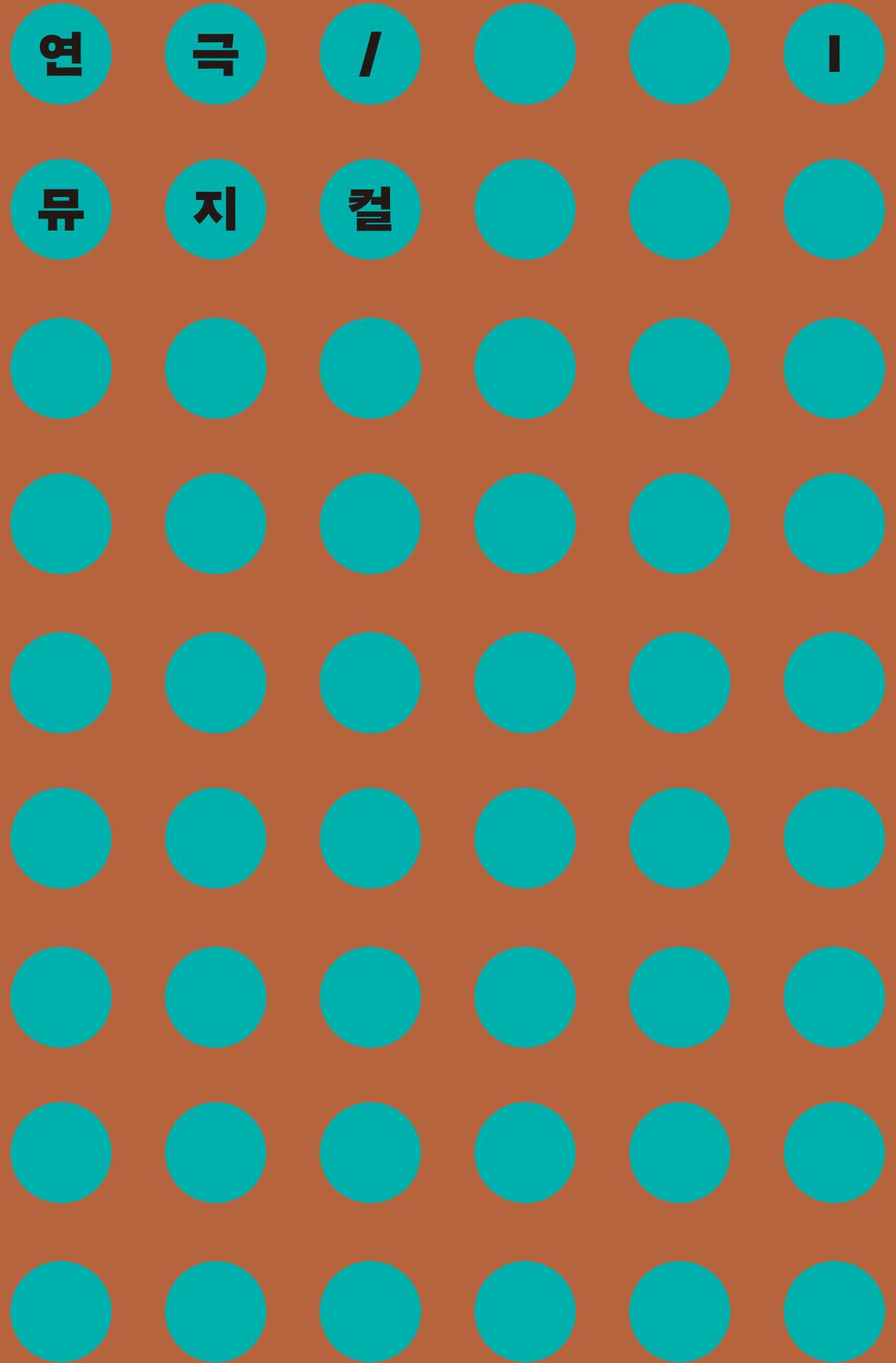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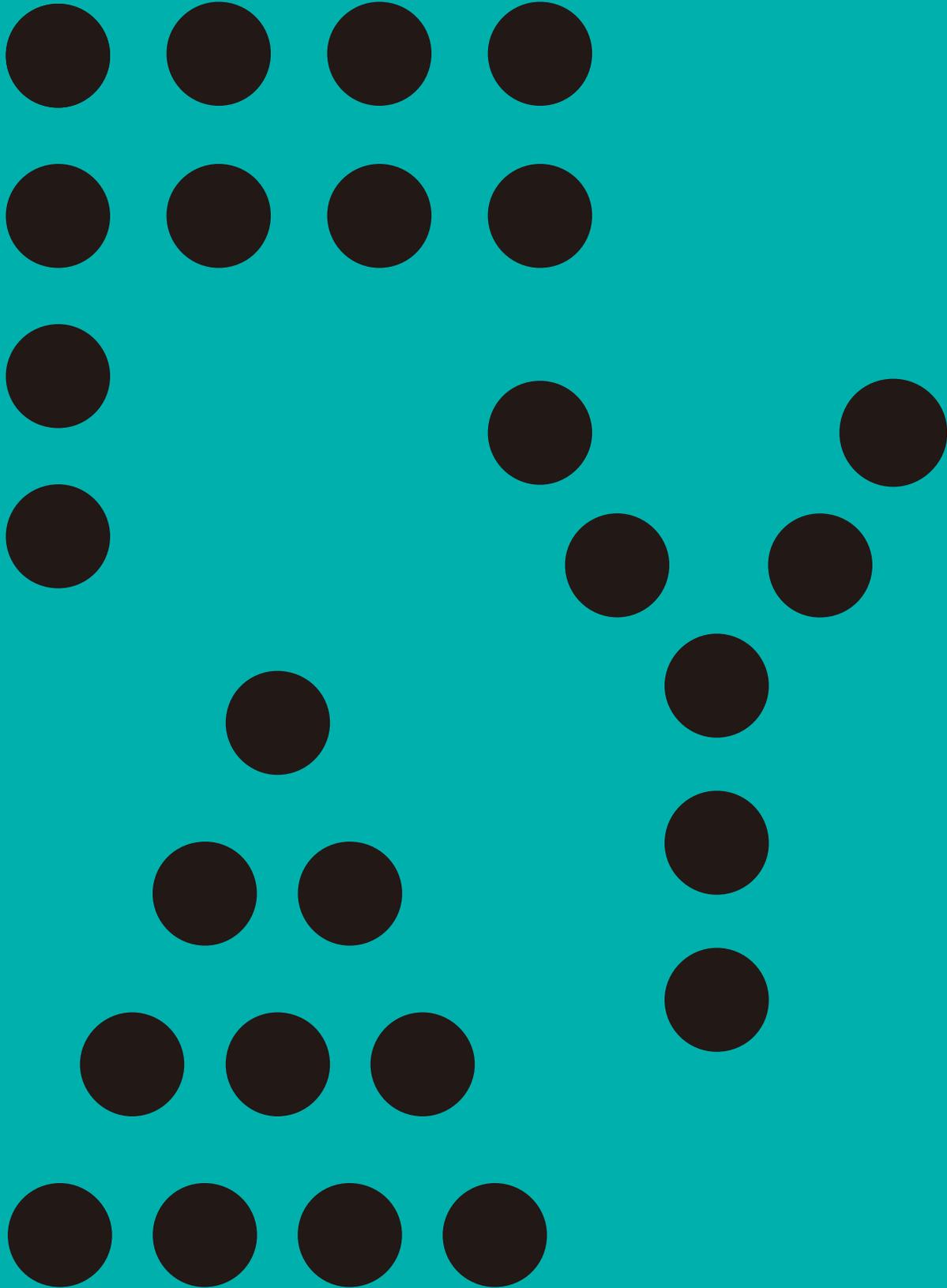
## IV. 시각, 복합

	주식회사 포밍부스	163	〈안녕, 잠!〉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169	〈안녕? 미래도시〉
	만화경	175	〈마법의 회전목마〉

	넘나들이 아트랩	181	〈O과 F사이 그라데이션〉
	유영(김주영)	187	〈하나가 걷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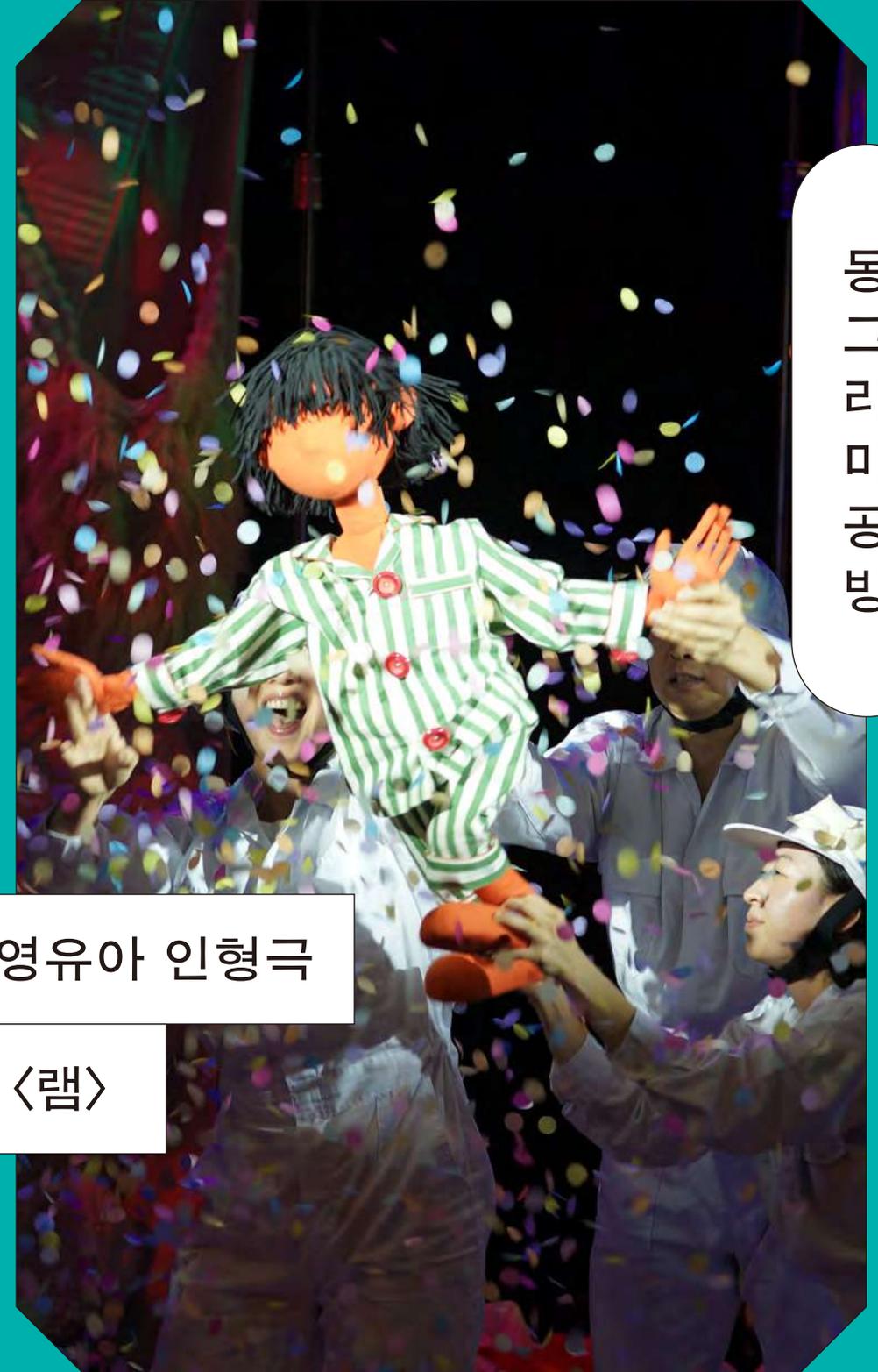
## 2025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194	사업 소개 및 주요통계
198	심의 총평 및 좌담회 결과



2차제작

영유아



페니 램미 뽀롱

영유아 인형극

<램>

@workshop\_go\_round



단체소개

**동그라미공방**

‘동그라미공방’은 인형과 오브제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형극 창작팀입니다. 시각·청각·촉각 등 감각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동화적 상상력을 더한 인형극을 만듭니다. 2018년 창단 이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을 만들고 있으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연구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기관들과의 협력 및 제작지원을 통해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mail [workshop.go.round@gmail.com](mailto:workshop.go.round@gmail.com)  
 Instagram [@workshop\\_go\\_round](https://www.instagram.com/workshop_go_round)

연락처

작품소개

우리 아이의 가장 익숙한 공간, ‘방’에서 펼쳐지는 낮설고도 기묘한 꿈속 환상. 특 튀어나오고, 뒤섞이고, 어딘가 요상한 것이 가득한 꿈의 세계로 떠납니다. 감각으로 소통하는 언버벌 인형극 <램>, 지금, 가장 어린 상상과 만나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기획·연출 노트

**인형과 오브제를 활용한 영유아인형극 개발**

<램>은 영유아극에게 기대하는 온기와 동화적인 정서 뿐 아니라 무의식과 꿈이라는 키워드를 확장하여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상상의 흐름들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영유아들에게는 다양한 감각으로 다가가는 인형극이자, 보호자들에게도 영유아와의 극장 경험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체험을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워크샵 과정을 통해 기제작된 인형과 오브제들을 다시 이용하여 움직여보며 새로운 움직임과 꿈의 키워드들을 도출하고, 베이스 및 전자 사운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각적인 요소와 인형/오브제가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더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 동그라미공방

일시 : 2025.9.19.(금)-9.21.(일)

장소 : 종로아이들극장

러닝타임 : 50분

관람연령 : 18개월 이상(만 3세 이상 권장)

총 관객 수 : 401명 (유료관객 331명, 무료관객 70명)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진 : 공동창작 김보경, 김미란, 박동조, 육다솔, 이정윤, 장햇살, 하재성  
 연출 김미란 출연 김보경, 박동조, 장햇살, 하재성  
 조명디자인 이정윤 무대디자인 육다솔 인형·오브제디자인 이정윤, 육다솔, 장햇살 음악 정상우 프로듀서 정경원 그래픽디자인 김여준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 감각 중심의 접근을 통해 영유아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편안함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일상 속 익숙한 '잠'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꿈의 세계를 상상하고 체험하며,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잠버릇이나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감각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 확장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 극의 흐름, 연기자들의 앙상블, 색감, 인형, 소도구들의 미장센이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두서없이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은 서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상의 공간과 교육의 공간, 체험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신작제작

어린이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해  
의  
아  
이  
들



단체소개

해의 아이들

'해의 아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기 안의 목소리를 만나도록 돕는 창작 단체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감정과 질문들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는 작품을 만듭니다.

연락처

E-mail [sunnykids0716@naver.com](mailto:sunnykids0716@naver.com)  
 Instagram [@sunnykids0716](https://www.instagram.com/sunnykids0716)  
 Blog <https://blog.naver.com/sunnykids0716>

작품소개

판소리x뮤지컬, 판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째깍째깍! 숨을 준비는 되었겠지? 판타지아 워터랜드에서 펼쳐지는 이상한 숨바꼭질

9살 연지, 물을 무서워하는 엄마와 워터파크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바닷속 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기억을 잃은 아이. 그 아이가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은... '오빠'?

잃어버린 오빠를 찾기 위한 신비로운 숨바꼭질 모험!

겁쟁이지만 따뜻한 고래선장, 이야기를 이끄는 판소리 해설자, 영동한 매력을 가진 인어와 물고기인간, 그리고 물고기 어(漁)벤저스 친구들까지! 시간을 잡아먹는 무서운 째깍상어와 맞서 연지는 과연 오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획·연출 노트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치유'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연지가 바닷속 판타지 여행을 겪으며 '아픔을 어루만지는 우정의 손길'과 '다름을 이해하는 포용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작품입니다. 문은아 작가의 따뜻한 이야기, 이명희 작가의 환상적인 그림으로 완성된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한울림어린이)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이야기꾼이 판소리로 극의 흐름을 이끌고, 동화 속 캐릭터들은 뮤지컬 넘버를 통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음악과 움직임, 서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전 세대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무대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해의아이들  
 일시: 2025.8.28.(목)-8.31.(일)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70분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추천 연령: 만4세 이상)  
 총 관객 수: 541명 (유료관객 230명, 무료관객 311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원작 문은아 극작 유자홍 작곡 김승진 안무 정윤 연출 오준석  
 출연 유정민, 설재영, 김봉영, 김하준, 김두리, 오유라 연주 김승진,  
 이형철 무대디자인 백철 무대기술감독 박기남 조명디자인 손정은  
 음향디자인 김성욱 영상디자인 황호규 의상디자인 강정화  
 분장디자인 김소희 소품디자인 김지현 그래픽디자인 강지우  
 기획보조 이서정 기획PD 김민형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미래세대에도 결코 잊혀져선 안되는 아픈 역사를 예술의 형식을 통해 불편하지 않게 관객에게 전하는 작품입니다. 판소리와 뮤지컬이 적절히 만나며, 판소리의 사용이 형식의 다양화에서 그치지 않고 장면의 연결구도로 적절히 사용됩니다. 무엇보다 예술적 초점이 관객에게 맞추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주제의 의미, 형식의 도전, 예산의 적절한 활용이 돋보입니다.

비평문 QR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  
 우리 함께 <이상한 나라의 음바꼭질>  
 박병성(공연칼럼니스트)



2차제작

어린이



국악인형극

<별>

창작집단  
인사리

단체소개

창작집단 인사리

'창작집단 인사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며, 누구나 문화 예술을 즐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극장에 찾고, 환영받으며, 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E-mail [theatreinsari@naver.com](mailto:theatreinsari@naver.com)  
Instagram [@theatre\\_insari](https://www.instagram.com/theatre_insari)  
Blog <https://blog.naver.com/theatreinsari>

연락처

작품소개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특별한 '뽕'을 가지고 있어!

나만의 뽕(개성)을 받아들이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태어날 때부터 하하호호,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특별한 아이 '아리'.

하지만 자라날수록 따뜻했던 시선은 사라지고, 아리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의 머리에서 수욱 하고 자라난 '마음의 뽕!'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혹시 나는 도깨비일까?"

마음속에 자라난 의문을 안고, 아리는 전설 속 도깨비를 찾아 길을 떠난다.

깊은 밤, 반딧불이가 춤추는 도깨비숲에서 도깨비들을 만난 아리. 그리고 그곳에서 뽕 없이 태어난 특별한 도깨비, 1개비를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을 통해 아리는 깨닫는다.

자신의 뽕은, 자신이 가진 용기와 재미있는 상상력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특별함이라는 것을.

기획·연출 노트

국악인형극 <뽕>은 또래와 달라 상처받는 아이 '아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다름은 옳고 그림이 아니라 특별한 개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뽕'이라는 친근한 상징을 통해, 누군가의 다름이 사실은 그 사람만의 소중한 빛 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리와 친구들, 그리고 뽕이 없거나 저마다 다른 모양의 뽕을 가진 도깨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내 삶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뽕>은 아리가 '나다움'을 찾는 여정을 통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질간질 뿔이 올라오는 소리] 

(1개비) ♪ 정수리가 간질간질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창작집단 인사리  
 일시: 2025.10.3.(금)-10.5.(일)  
 장소: CKL스튜디오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총 관객 수: 471명 (유료관객 146명, 무료관객 325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참여진: 작/연출 한지혜 연출부 장호중 기획 이선일  
무대기술감독 최진원 조명디자인 임수연 조명크루 오정훈, 조철민,  
 정태진, 정재림, 박보영 음향감독 이효민 음악감독 한수진  
작창 강나현, 정비아 무대미술 안서연 의상디자인 조경희(묘수)  
한국어 자막 이시은(봄날) 타이틀 디자인 신익준  
홍보물 디자인 이숙형(순순간간) 접자안내서 제작 도서출판 접자  
대본, 포스터안내음성해설 자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연안내음성해설 이소연 한국수어대본 및 안내영상 김선영, 김선미,  
 김민지 한국수어 안내영상 제작 엘리스튜디오  
배리어프리 및 한국수어자문 이미경((사)장아람재단), 박정섭  
로비한국수어통역 조주현, 박정섭 이동지원 백운철, 김은숙 티켓 김민지  
분장 주아트 프로필 촬영 김명집 공연 촬영 정효섭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수어’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서 창작의 도구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모두’를 위한 공연예술의 실현 가능성을 질문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창작 작업의 성과와 결실을 제시하는 우수 사례로 생각됩니다.

2차제작

어린이

창작집단 LAS

**<고구마밭 그 랩터>**



@play\_thelas



단체소개

**창작집단LAS**

창작집단 LAS\*는 즐겁게 공연을 하기 위해 모인 젊은 예술가들의 집단입니다. 공연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집단의 창작욕구가 끊임없이 활활 타올라 공연계에서 반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우리의 이름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LAS(라스): '반짝임, 갑작스러운 나타남, 활활 타오름, 놀이, 무엇에 몰두함' 이란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

연락처

E-mail [playthelas@naver.com](mailto:playthelas@naver.com)  
 Instagram [@play\\_thelas](https://www.instagram.com/play_thelas) Homepage [www.playthelas.com](http://www.playthelas.com)

작품소개

〈고구마밭 그 랩터〉는 창작집단 LAS의 신작 개발 플랫폼 '라스낭독극장'을 통해 2019년 첫선을 보인 이후, 2020 바닥소리 가족극 페스티벌 초청, 2021 아이들극장 창작 지원 선정, 2022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초청 등 다양한 무대에서 호평을 받으며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을위한 예술지원 선정작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나게 된 〈고구마밭 그 랩터〉는 팝업 그림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귀여운 아기도마뱀과 곤충 친구들과 함께 꼬리 찾기 모험을 떠나게 된 꼬마 예준이의 유기농 탐험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획·연출 노트

〈고구마밭 그 랩터〉는 창작집단 LAS의 대표 배우 이주희가 실제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다치고 아물며 성장해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직접 집필한 가족극입니다. 모험 속에서 다양한 곤충과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를 응원하며 우정을 키워가는 예준이와 랩터의 이야기는 어린이 관객에게는 즐거움을, 성인 관객에게는 잊었던 동심을 깨워주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회복의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연극 활동을 주로 해오던 배우들과 국악극을 주로 해오던 판소리꾼, 그리고 연극과 국악극 모두를 섭렵한 연출가과 음악감독의 협업으로, 보다 신선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기타와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서양악을 바탕으로 작곡한 노래에 소리북과 피리, 판소리 등 국악적 요소를 첨가하여 편곡 및 작창을 하여 총 12곡의 넘버를 완성하였습니다.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극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어린이 관객들의 오감을 깨우치는 공연을 제공합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창작집단LAS  
 일시: 2025.8.14.(목)-8.17.(일)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6세 이상 권장)  
 총 관객 수: 448명 (유료관객 243명, 무료관객 205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극작 이주희 각색/연출 이기쁨 작곡/음악감독 백하형기  
안무 류정아 출연 이새롬, 이주희, 김희연, 임현국, 김은경, 이승민  
피리/기타 김조현, 페이스/타악 백하형기 피아노 오아영  
무대/소품/의상 강정화 조명 홍주희 음향 강미정 그래픽 고동욱  
무대감독 이다빈 기획팀 이주희 김희연 SNS홍보 윤찬호  
티켓관리 한승희, 문은미

**심의회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이 작품은 어린이와 가족을 주요 관객으로 하여, '회복'이라는 정서를 일상적인 이미지와 서사를 통해 전달합니다. 도마뱀의 잘린 꼬리라는 상징적 설정은 어린이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어른에게는 개인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고구마밭이라는 친숙한 공간과 '랩터'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전개는 어린이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동화적인 무대 구성과 국악과 서양악이 결합된 음악은 공연을 놀이적 경험으로 확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린이 공연으로서의 기본적인 완성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평문 QR  
 공통이 된 도마뱀  
 <고구마밭 그 랩터>  
 협현희(연극평론가)



신작제작

어린이



정 Tree 프로젝트

<어느날 납작해진 아이와

끝으로 달려가는 할머니>

@jungtreeproject



단체소개

**정Tree프로젝트**

‘정Tree프로젝트’는 무용, 미술, 연극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모여 “예술은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몸, 공간,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세 가지 주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에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창작을 추구하며, ‘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보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jungtreeproject@gmail.com](mailto:jungtreeproject@gmail.com)  
 Instagram [@jungtreeproject](https://www.instagram.com/jungtreeproject)

작품소개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감각적 오브제 공연**

〈어느 날 납작해진 아이와 끝으로 달려가는 할머니〉는 갑자기 사라진 엄마를 찾아 길을 나선 아이와, 삶의 끝을 향해 걷는 할머니가 만나 함께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상실과 이별이라는 삶의 중요한 순간을 움직임과 오브제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로 풀어갑니다. 무대 위의 오브제들이 배우의 몸과 만나 물과 바람, 나비와 거북이로 변신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공연은 릴렉스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느슨해진 공간 속에서 아이와 양육자가 오브제를 직접 만지고 장면을 함께 완성해 갑니다.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환상적인 장면과 형식적 실험성을 통해 무겁지 않게 풀어내며,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관객이 웃고 공감하며 깊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어린이극입니다.

기획·연출 노트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어린이에게는 여전히 이야기하기 어렵고 회피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라면서 크고 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죽음을 설명하거나 가르치기보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그 감정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출발했습니다. 〈어느 날 납작해진 아이와 끝으로 달려가는 할머니〉는 몸의 움직임과 오브제, 시적인 이미지를 통해 죽음을 자연과 삶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 공연은 죽음이 슬프고 이별이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삶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음을 조용히 전합니다. 릴렉스 퍼포먼스 환경 속에서 아이와 보호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에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바라보고, 누군가는 몸을 움직이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반응이 존중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상실과 애도를 안전하게 나누며,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정Tree프로젝트

일시: 2025.10.16.(목)-10.19.(일)

장소: 아르크꿈발극장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만 3세 이상

총 관객 수: 180명 (유료관객 97명, 무료관객 83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꿈발극장

참여진: 연출 장원정 드라마터그 신윤아 조연출 김보경

미술오브제디자인 신혜정 작곡 이보람 무대감독 김한솔

조명디자인 이보람 무대 김태훈 의상 이상훈 영상 강경호

기획홍보 김현정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어린이를 다양한 감각으로 만나고자 한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으나, 이를 풀어내는 방식은 어린이극에서 자주 활용되는 익숙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놀이를 매개로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며, 본 공연의 의미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후반부 전개는 무게감이 보완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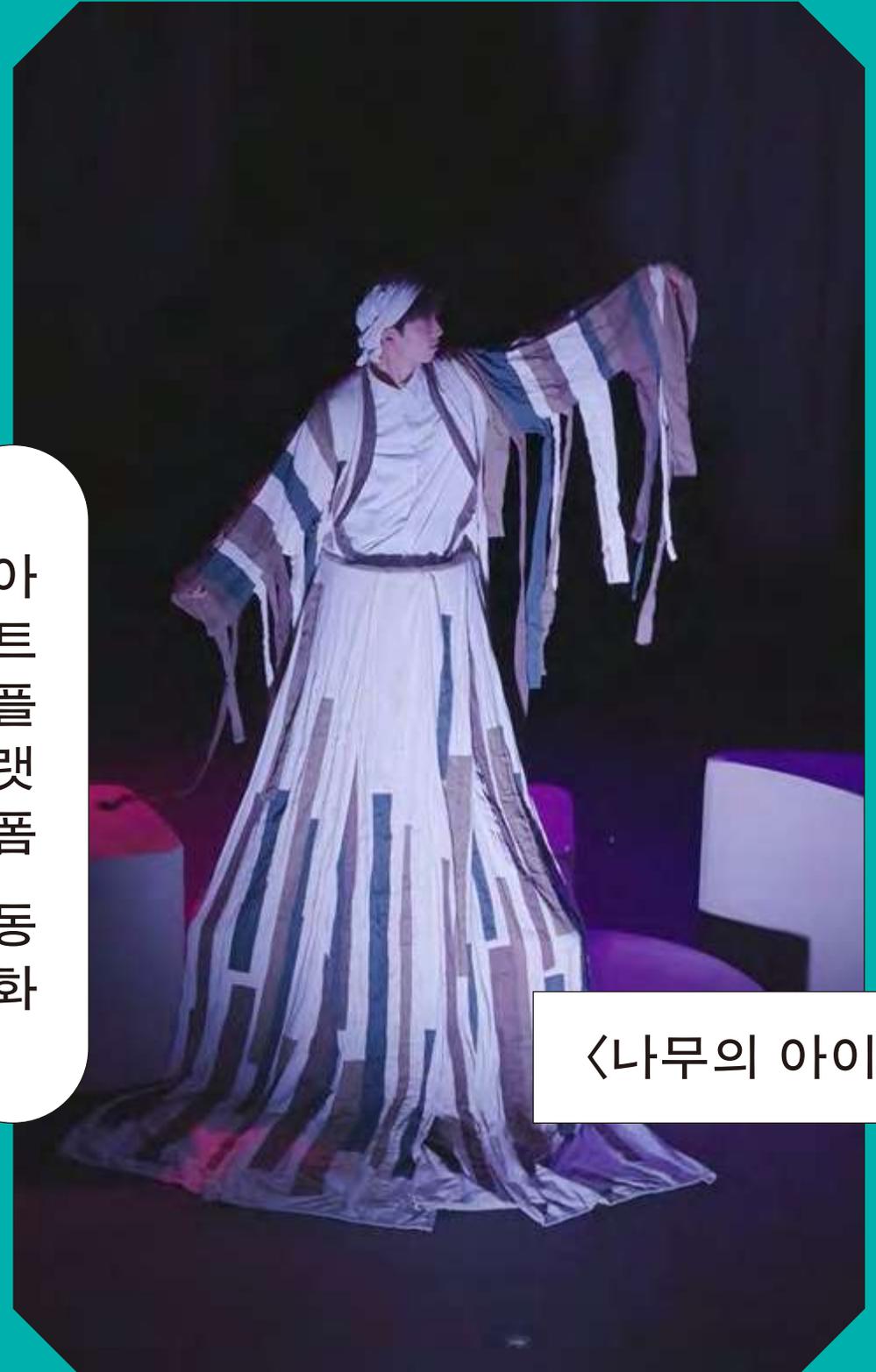
비평문 QR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가는 여정  
남지수(연극평론가)



2차제작

어린이

**아트플랫폼 동화**



〈나무의 아이〉

단체소개

아트플랫폼 동화

예술단체 <아트플랫폼 동화>는 '혁신자, 수호자, 매개자'를 핵심 미션과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여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을 타 장르와 융합하여 혁신적인 무대 예술을 창출하고, 옛 것의 대중화와 세계화라는 예술적 과업을 실현하며, 현대인들의 고민과 관심을 진중한 주제 의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부터 어른 세대들까지 다양한 관객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여 전통 예술과 관객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일상 속 감동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락처

E-mail [dudghsdms@ibicompany.co.kr](mailto:dudghsdms@ibicompany.co.kr)  
Instagram [@art\\_donghwa](https://www.instagram.com/art_donghwa)



작품소개

한국설화 '목도령과 대홍수'를 모티브로 하는 어린이(가족) 음악극 <나무의 아이>

아버지가 나무라고 주장하는 나무도령은 아이들에게 '나무는 아빠가 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는 외톨이 나무도령이지만, 나무도령에게는 무엇보다 아버지가 소중하다. 나무도령은 아빠를 위해 물을 길어다 주고, 벌레를 쫓아내며 나무아빠를 지킨다. 그런 나무아빠는 아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가지에 올려 누구보다 높은 세상을 보여주며 나무도령을 키운다. 그런 행복한 때도 잠시,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 세상을 집어삼키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위태로운 세상에서 불박이 나무아빠와 외톨이 나무도령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처음으로 모험을 떠난다. 그 길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나무아빠와 나무도령은 과연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

기획·연출 노트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상'을 유쾌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그려낸 작품 세계 어느 민담이나 존재하는 대홍수 이야기. 민담 속엔 그곳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담깁니다. 한국의 민담인 '나무도령'에서는 편견의 대상인 나무아빠를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무의 아이>는 이 같은 소중한 전통민담의 주제의식을 뼈대로 삼아 순환적이고 수평적인 세계관을 신명 넘치는 음악극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작품에서 나무도령은 유일한 가족이자 지지자였던 나무 아빠와 헤어지고 홀로 남겨집니다. 이때 세상에서 만난 아이의 친구들은 하찮게 여겨지거나 남들이 기피하는 개미, 모기, 멧돼지입니다. 오히려 작디작거나 사나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홀로서기'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른들에게도 감명과 교훈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음악극 <나무의 아이>는 배우와 연주자들의 무대로 구현됩니다. 대금, 거문고 등 국악기들이 다양한 효과음과 더불어 극을 이끌어가는 풍부한 라이브 연주와 노래가 극을 보조함으로써 풍부한 즐길 거리와 다이내믹한 에너지로 공간을 채우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아트플랫폼 동화

일시: 2025.10.23.(목)~10.26.(일)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총 관객 수: 177명 (유료관객 17명, 무료관객 160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출연 이대현, 윤수진, 이은지, 문재웅 대본/작사 구도윤

작곡/음악감독 민찬홍 연출/안무 민찬홍 소품/의상 조경희

총괄기획 서민수 프로듀서 서유석

###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어린이 음악극 <나무의 아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래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아빠와의 애정, 자연과 생명을 돌아보는 마음을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그려내며, 이러한 서사는 초연 이후 꾸준한 공연으로 이어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동형 무대를 활용해 '아빠 나무'가 나무이자 배로 변신하는 연출은 어린이 관객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며, 전통과 현대 감성이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어린이 음악극으로 교육적 메시지와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전달합니다.

신작제작

어린이

시작과 끝



어린이 음악극

<저승할망>



단체소개

**시작과끝**

이야기기획단 '시작과끝'은 재미있는 상상과 이미지로부터 이야기를 찾아내어 매체와 장르의 제한없이 구체화시키는 프로젝트 기획그룹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세상에 태어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E-mail [beginning-end@naver.com](mailto:beginning-end@naver.com)  
 Instagram [@2022\\_beginning\\_end](https://www.instagram.com/@2022_beginning_end) [@play\\_for\\_young](https://www.instagram.com/@play_for_young)  
 Homepage [beginning-end.com](http://beginning-end.com)

작품소개

**아이를 점지하고 지켜주는 삼신할머니와 제주 무가에서만 전해져 온 저승할망, 사랑받고 싶었던 두 소녀가 요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버드나무 늘어진 물가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동해용왕의 외동딸 외딸아기로, 어린시절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 아이를 점지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출산시키는 법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때 명진국 딸부잣집 만딸, 큰딸아기가 다가와 위로해줍니다.

큰딸아기는 갑작스런 옥황상제의 명으로 가족과 떨어져 인간 세상에 왔지요. 두 소녀는 금세 친구가 되어 각자의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곧, 임박사 집 아기의 출산을 두고 서로 자신이 삼신이라며 요란하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를 알게 된 옥황상제는 두 사람에게 꽃피우기 대결을 제안합니다.

누가 삼신이 될 것인가!

두 소녀의 꽃 피우기 대결.

기획·연출 노트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삼신할망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우연히 저승할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장난을 쳤다고 집에서 쫓겨난 저승할망과, 고분고분하고 똥똥하다는 이유로 생각지도 않던 일을 맡게 된 삼승할망에게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은 먼 옛날이지만 동시에 요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배울 시간도 없이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갇혀 자신을 포장하거나 혹은 실패자로 내몰립니다. 기대의 시선이라는 또 다른 철갑에 갇혀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자신의 씨앗이 꽃나무가 아님에도 꽃을 피워내기 위해 애쓰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신만의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볼 때 누구나 피어나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그 씨앗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원이 각자의 피어남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이야기기획단 시작과끝  
 일시: 2025.10.10.(금)-10.12.(일)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65분  
 관람연령: 만 3세(36개월) 이상  
 총 관객 수: 571명 (유료관객 493명, 무료관객 78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출연 이선호, 연승아, 서울, 박두희 연주 황현선, 오영진, 변혜경  
 작/연출 최은정 작곡 안예은 음악감독·편곡 정진우  
 안무 한승훈 미술 조경희 음향 조의근 조명디자인 김휘수  
 무대감독 고재현 무대조감독 현수빈 조연출 김주영 일러스트 은미  
 사진 하지영 영상 레디포커스(강동희) 홍보물디자인 홍성진 홍보 임희연  
 기획 백선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작곡가 섭외, 배우 선발 오디션, 공연 시기 설정 등 기획적 전략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타깃층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관객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전통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국악기와 양악기의 조화를 시도한 음악 구성은 어린이들에게 전통과 현대의 감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이야기의 서사적 연결성과 미술적 표현이 더욱 보완된다면 작품의 주제와 감동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러한 보완을 통해 전통 설화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 음악극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비평문 QR  
 어린이라는 신(神)  
 성혜인(음악평론가)



신작제작

어린이

**판소리 이어달리기 노는 국악**

〈셋!〉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야기

단체소개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아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아'는 '나'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마을의 예술들판을 꿈꾸는 창작자들로 이루어진 문화예술협동조합입니다. 놀이가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가 재미난 놀이를 펼치며, 삶터와 일터를 일치시켜 일상을 예술로 가꾸어 나가는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artcoopiya@gmail.com](mailto:artcoopiya@gmail.com)  
Instagram/Facebook @artcoopiya  
Blog <https://blog.naver.com/artcoopiya>

© 옥상훈



작품소개

누가 누가 잘났나? 수궁가로 겨뤄보는 재주꾼들의 판소리 이어달리기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자라의 모험담, 용궁에서 죽다 살아난 토끼의 영웅담,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용왕.

승패가 나뉘는 이야기를 넘어, 연대와 다양성의 이야기로 여럿이 함께 가는 판소리 이어달리기! 이야기, 소리, 춤, 연희 재주꾼들이 모여 서로 잘났다 다투자, 산발이가 하늘과 바다, 땅 '셋'이 겨루는 이야기로 누가 더 잘하나 결판을 내어보자 합니다.

용왕, 자라, 토끼 '셋'이 나오는 판 안에서 저마다의 재주를 뽐내며 이야기를 이어달리는 노는 국악 '셋!'

'수궁가'를 재담과 만담, 판소리와 춤, 연희를 뽐내며 풀어가보는데.... 장면마다 자꾸만 바뀌는 용왕과 토끼, 자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재주겨루기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기획·연출 노트

'수궁가'는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자라의 모험담이자, 용궁에서 죽다 살아난 토끼의 영웅담,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 모두의 욕망이 투영된 용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에 담긴 세상의 여러 모습을 통해 혼자만 주인공인, 승패가 나뉘는 이야기를 넘어 연대와 다양성의 이야기로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나 하나 잘 한다고 끝까지 갈 수 없는 이어달리기처럼 서로 겨루지 말고, 내치지 말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여럿이 함께 가는 판소리 이어달리기로 주제를 부각하였습니다. 옛것을 이어 오늘의 새 마음을 지어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 옥상훈





© 옥상훈



© 옥상훈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아

일시: 2025.12.11.(목)-12.14.(일)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50분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총 관객 수: 608명 (유료관객 226명, 무료관객 382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극작 정가람 연출 김소정 협력연출 최정아

작곡 김승진 안무 김신아 소리지도 이유정 소품디자인 김지현

의상디자인 고혜영 조명 박종화 음향디자인 김찬 홍보물디자인 박정민

조연출 김나희 사진촬영 옥상훈 소품제작감독 박정규

기획 이야기기획단 시작과끝(백선, 최은정) 출연 최영석 민대식 최자인

오현범 이지은 김승진 이유정

**심의회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국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처럼 보기 힘든 '수궁가'에 연희와 음악, 연극성을 더하고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전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든 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과 부채 등을 오브제로서 활용하여 극적 재미를 더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음악적 요소 그리고 배우들의 끼 넘치는 연기들이 또 하나의 연희로서 극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평문 QR  
판소리 <수궁가>를 새롭게 해석한  
신나는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  
오판진(연극평론가)



2차제작

어린이

극단  
즐거운  
사람들



<나무가 있는 풍경>



단체소개

**극단즐거운사람들**

전문예술 단체 극단 즐거운사람들(1992창단)은 해외 우수한 작품을 초청, 공동제작 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우수작을 배출하고 아동청소년연극 발전에 이바지하며, 연극의 전문화, 교육화, 축제화를 모토로 지역사회에 대한 연극적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 예술을 살리는 일에도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joyfulart1@hanmail.net](mailto:joyfulart1@hanmail.net)  
 Instagram [@joyful\\_theatre](https://www.instagram.com/joyful_theatre)  
 Blog <https://blog.naver.com/joyful3355>



작품소개

〈나무가 있는 풍경〉은 화가 장욱진의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동심'의 기운을 무대 위에 되살려낸 가족 그림연극입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는 화가 할아버지를 만나 자연과 그림, 그리고 마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이는 단순한 선과 색 안에 숨겨진 '진짜'로 보는 힘과 '느끼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의 나, 지금의 어린이, 그리고 오래 살아온 어른들의 마음속에 모두 존재하는 내면의 '작은 아이', 잊고 지낸 동심을 다시 불러냅니다. 이 공연은 단지 아이를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3세대가 함께 서로의 생각과 기억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이해'와 '경험'을 나누는 치유와 회복의 공연입니다. 그림처럼 소박 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한 편의 연극.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동심의 힘을 다시 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연출 노트

장욱진 화가의 작품에서 동심을 보았습니다. 이 동심으로 어린이였던 나와 지금의 어린이 그리고 오랜 삶을 통해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린 동심을 불러내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배부른 내가 배고팠던 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행복을 저버리고 있는 일상을 보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들여다볼 동심, 생각의 힘을 찾아가는 일상으로 회복해 가기를 희망하는 데서 비롯했습니다. 화가 장욱진(비공)의 일상여정 안에서 아이 동이가 길러낸 생각의 힘이, 3대(代)가 함께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을 나누는 지혜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제작

어린이

# 오브제텔링극

## <나무 쪽 이웃집>

극단 21



###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극단 즐거운 사람들

일시: 2025.9.4.(목)-9.14.(일)

장소: 아르고꿈발극장

러닝타임: 50분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5세 이상 권장)

총 관객 수: 331명 (유료관객 93명, 무료관객 238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옥진미술문화재단, 아르고꿈발극장

참여진: 연출 김병호 안무 장운규 작가 희고 출연 최형석, 김지숙, 오형규, 김유민, 최유진, 김민지

### 심의회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장옥진 화백의 그림을 활용한 점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추상화의 대가가 남긴 실제 어록을 바탕으로 한 대사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삶의 태도에 귀감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네 명의 배우가 노래, 춤, 연기를 균형 있게 수행하여 시각적·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하였으며, 새롭게 재구성된 영상 디자인 역시 감각적이고 아름답게 구현되었습니다.



비평문 OR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극단 즐거운사람들 <나무가 있는 풍경>  
최권화(관객평론)





단체소개

극단21

극단21은 2000년부터 어른과 아동, 청소년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온 공연예술전문단체입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 각지의 문화재단, 축제, 교육기관 등에서 수많은 관객들을 만나왔으며, 장르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연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각자의 방식을 이해하고,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artplay21@hanmail.com](mailto:artplay21@hanmail.com)  
 Instagram [@artperform21](https://www.instagram.com/artperform21)  
 Homepage <http://play21.co.kr/notice/9466>

작품소개

깊은 숲 커다란 나무에 낮에는 도토리 요정 다람쥐 '라미'가, 밤에는 꼬마 고민 해결사 고슴도치 '두치'가 살았어요. 처음 만났을 땐,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지만,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 함께 살게 됐죠. 어느 날, 자연을 노래하는 올빼미 '빠미'와 맛있는 벌레를 찾아다니는 딱따구리 '또리'도 나무에 왔어요. 빠미와 또리도 잠시 자기 자리라고 다투지만, 두치의 도움으로 모두 사이좋게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작은 일로 투닥투닥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활짝 웃던 얼굴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서로 나쁜 말을 하다가 결국 큰 소리로 싸우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와 태풍이 치며 나무를 마구 흔들고, 친구들이 아끼는 물건들이 바람에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 나무 속 친구들은 무사히 집을 지키고,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기획·연출 노트

오브제텔링극 '나무 속 이웃집'에 등장하는 '나무'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즉 사회를 의미합니다. 각기 다른 신념과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나가는 삶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으로 '나'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중적 고민을 끊임없이 던지며 관객들과 배우들이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공연예술전문집단 극단21  
 일시: 2025.8.21.(목)-8.24.(일)  
 장소: 아르고꿈발극장  
 러닝타임: 50분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총 관객 수: 196명 (유료관객 87명, 무료관객 109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고꿈발극장  
 참여진: 작가 전기연 연출 전영준 드라마터그 유성균 무대 정갑희 조명  
 안연수 음향 장현진 영상 조주호, 이아림 의상 길미정 총진행 장현주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다름 속 공존. 공존을 위한 공감과 이해. 보편적인 고민 같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이기주의들을 드러내는데 환경을 소재로 사용한 공연입니다. 무대를 충분히 활용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특색있게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극 구성의 리듬과 관객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의 전달방식을 더 고민한다면 발전이 가능할 작품으로 판단됩니다.



비평문 QR  
 숲을 빚댄 공동체, 그러나 끝내  
 달지 못한 이야기  
 박성원(연극평론가)



신작제작

청소년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

〈거짓말쟁이 마녀가 돌아왔다〉

@story\_buckets

단체소개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이야기를 사랑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된 창작집단입니다. 창작자와 관객, 그리고 참여자의 소통을 중심으로 연극적 상상과 변형, 역할놀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극 작품 창작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관객 및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일방적인 상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드는 연극을 지향합니다. '이야기양동이'는 우리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 경험과 예술 경험이 서로 만나기를, 보다 많은 관객들이 풍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mail [storybucket@naver.com](mailto:storybucket@naver.com)  
Instagram [@story\\_buckets](https://www.instagram.com/story_buckets)

연락처



작품소개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과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니!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어른들과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세 명의 집사가 '온몸'으로 들려주는 이 세상,  
이 시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기획·연출 노트

청소년에게 부모님들은 늘 자신보다 자유롭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곤합니다.  
어쩌면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은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은 꿈을 쫓으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배운 첫 세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부모가 되며, 새로운 고독과 외로움을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지만, 어쩌면 옛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만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하며 본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방치된 아이가 있는 가족을 다루는 이야기처럼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 강주성은 지금 시대, 자유롭고 꿈 많은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보다 새로운 '가족의 입장'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마녀가 돌아왔다>를 만들며 이야기양동이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어른들의 삶은 이해하기 힘든 '거짓말쟁이 마녀의 삶'이 아닐까요? 반대로 부모님들에게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청소년의 일면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런 청소년과 부모님들 각각의 태도를 떠돌이 집시들이 들려줍니다. 가족의 형태가 자유롭고, 집 없이 떠도는 삶을 사는 집시들이 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그리고 어떤 집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과 나눕니다. 한 사람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입장으로,  
또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보다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꿈꾸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양동이는 공연을 본 뒤 관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서로서로 '가족'에 대한 저마다의 입장과 생각을 나눌 수 있길 희망합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

일시: 2025.12.18.(목)-12.21.(일)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70분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총 관객 수: 395명 (유료관객 235명, 무료관객 160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작가 강주성 연출 탁호영 배우 한선영 박다미 박훈규 악사 백하형기 이서연 안무 손수아 음악감독 이슬기 무대디자인 서현재, 김나은 조연출 정문선, 장하람 기술감독 최진원 조명감독 우수정 의상디자인 강정화 예술교육 육지환 홍보 이은엽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창작자의 자전적 경험을 이야기 형식의 연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충돌을 플라멩코의 신체언어로 표현하며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일상의 삶과 예술이 교차하는 접점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비평문 QR  
블립화음이 가라앉은 자리,  
선명해지는 청소년의 리듬  
김연수(어린이청소년극 평론가)



2차제작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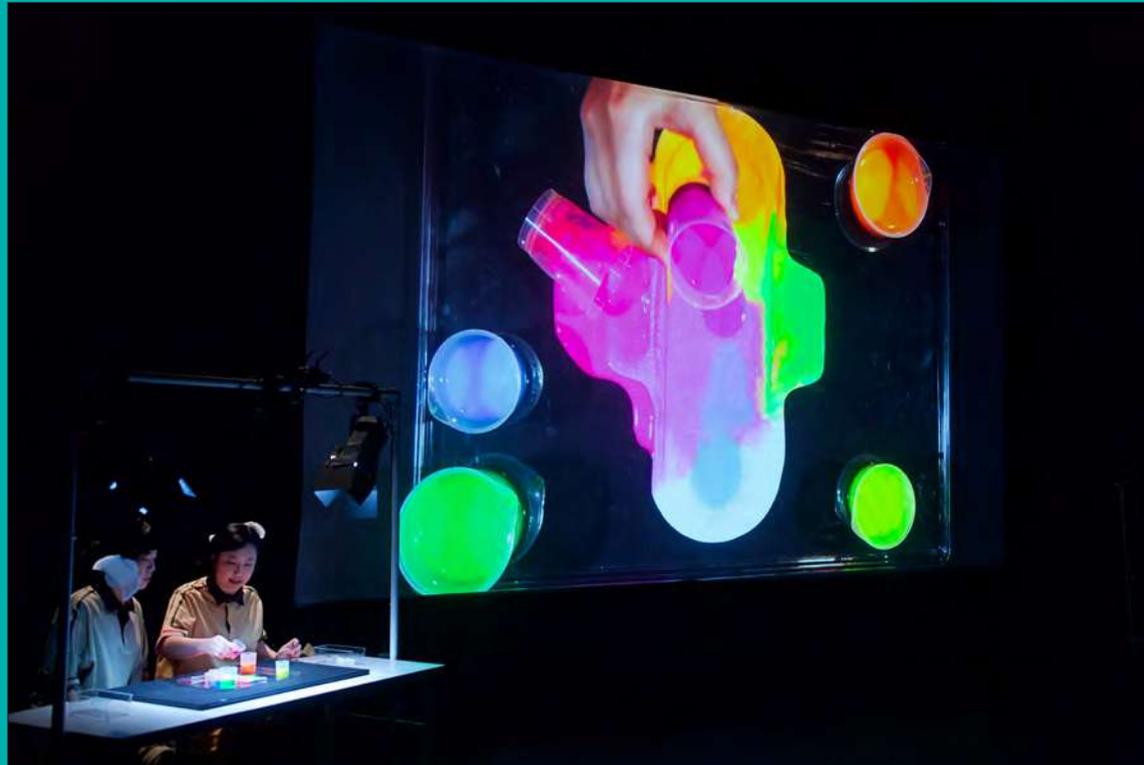


작  
극  
장  
H

청소년을위한 오브제극

〈우리의 빨강〉

@theatre\_h



단체소개

**작은극장H**

‘작은극장H’는 마음(Heart)으로 만나 희망(Hope)을 남기기를 꿈꾸는 창작 집단으로, 언제 어디서나 펼칠 수 있는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주로 인형, 오브제, 신체 움직임의 언어를 사용하여 관객들을 환상적인 ‘놀이’와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연락처

E-mail [theatreh2015@gmail.com](mailto:theatreh2015@gmail.com)  
 Instagram [@theatre\\_h](https://www.instagram.com/theatre_h)  
 blog <https://blog.naver.com/theatreh>

작품소개

**숨겨왔던 ‘우리의 빨강’**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월경을 주제로 한 솔직한 이야기**

매달 찾아오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월경.  
 초경, 생리통, 피임... ‘그날’에 묻어둔 감정과 기억들.  
 감춰왔던 ‘빨강’의 순간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경쾌하게 펼쳐진다.

**2명의 배우가 펼치는 감각적인 오브제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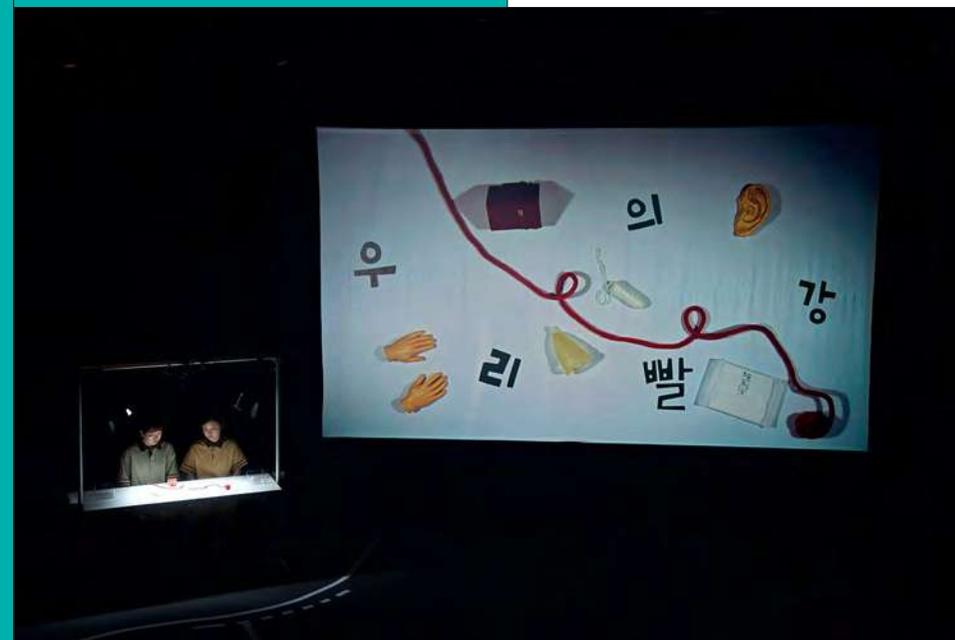
일상의 사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오브제, 영상, 사운드로 ‘빨강’의 감각을 시적으로 풀어내는 2인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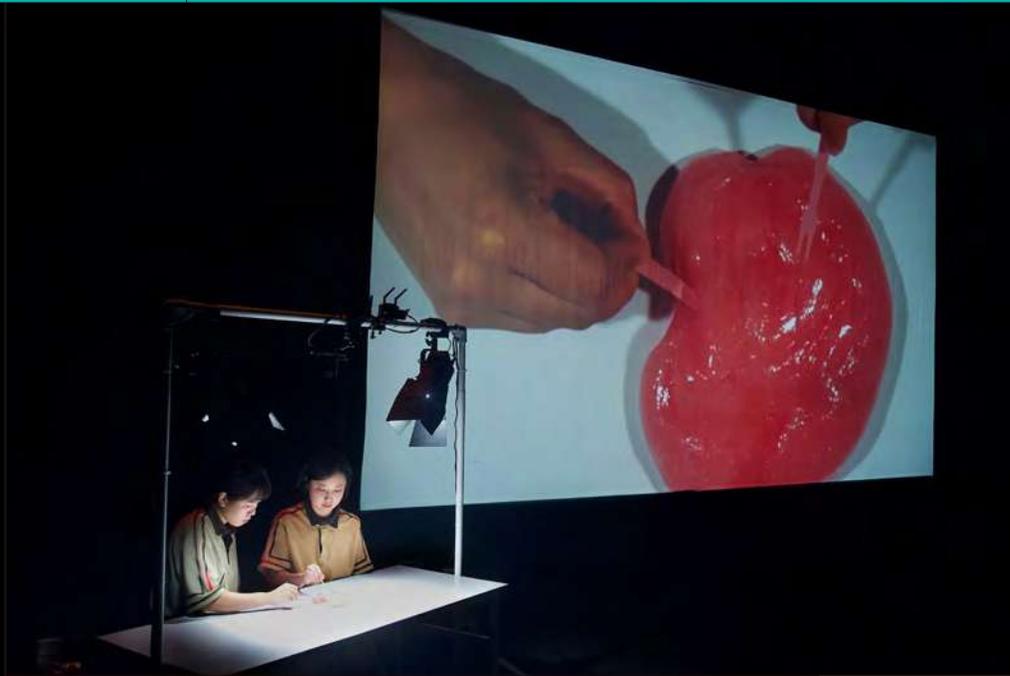
**청소년과 비청소년, 모두를 위한 공연**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커지는 청소년기,  
 그 순간을 함께 마주하고 이해하는 성장의 여정

기획·연출 노트

〈우리의 빨강〉은 쉽게 말할 수 없었던 몸의 변화와 감정, 월경의 경험을 솔직하고 새롭게 마주하고자 시작된 공연입니다. 월경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관계, 사회적 시선 등이 얽힌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비청소년도 함께 공감하며 자신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관객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언어로 이 무대를 채워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작은극장H

일시: 2025.8.8.(금)-8.10.(일)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

총 관객 수: 225명 (유료관객 113명, 무료관객 112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구성/연출 한혜민 출연 이수비, 최은별 조연출 양수진 음악/연주

신세빈 무대/오브제 안서연 조명 김나은 의상 이예원 무대/기술감독

최진원 사진/영상기록 홍상진 홍보디자인 스튜디오 작작 기획 하지현

자문 배요섭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실험적인 표현, 도전적인 주제 선택, 많은 리서치에 대한 흔적들이 앞으로 이 작품의 성장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더 많은 관객 개발을 위해서 서사에 대한 보완과 함께, 청소년 관객 유치에 대한 마케팅 부분의 기획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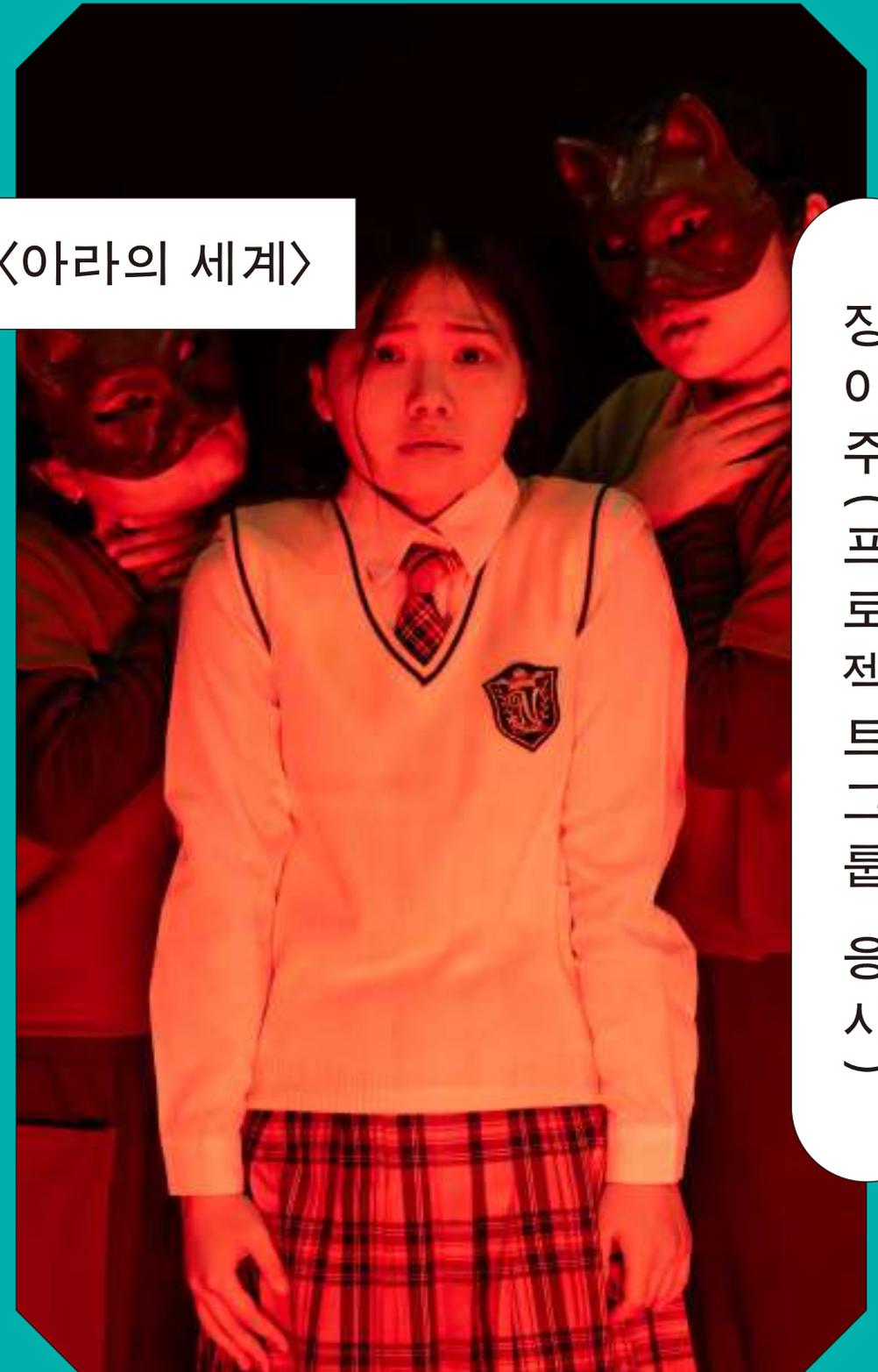
비평문 QR  
 감춰진 몸의 언어와  
 무대의 시도  
 황승경(연극평론가)



신작제작

청소년

**<아라의 세계>**



장이주(프로젝트그룹 응시)

단체소개

장이주

2019년 <프로젝트그룹 응시>를 창단하여 배우중심 피지컬 연극, 영상기법, 다채로운 오브제를 사용한 프로그레시브적 공연을 추구하며, 프로젝션 맵핑 등 영상매체로 '응시' 하는 심리적 행위의 미시적인 순간을 확장할 연기 및 다원 메소드를 연구 개발하는 창제작 예술인입니다.

프로젝트그룹 응시

본질을 향한 응시.

'응시(凝視)'는 대상을 향해 눈을 고정하고 집중하여 깊이 있게 바라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희 창작집단 '응시'는 단순한 시선을 넘어선 깊이 있는 통찰과 집중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연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도 담겨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고, 소외되거나 간과되기 쉬운 이면을 연극적 언어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E-mail [fangtin@naver.com](mailto:fangtin@naver.com)

Instagram [@gaze\\_yiju](https://www.instagram.com/gaze_yiju)

연락처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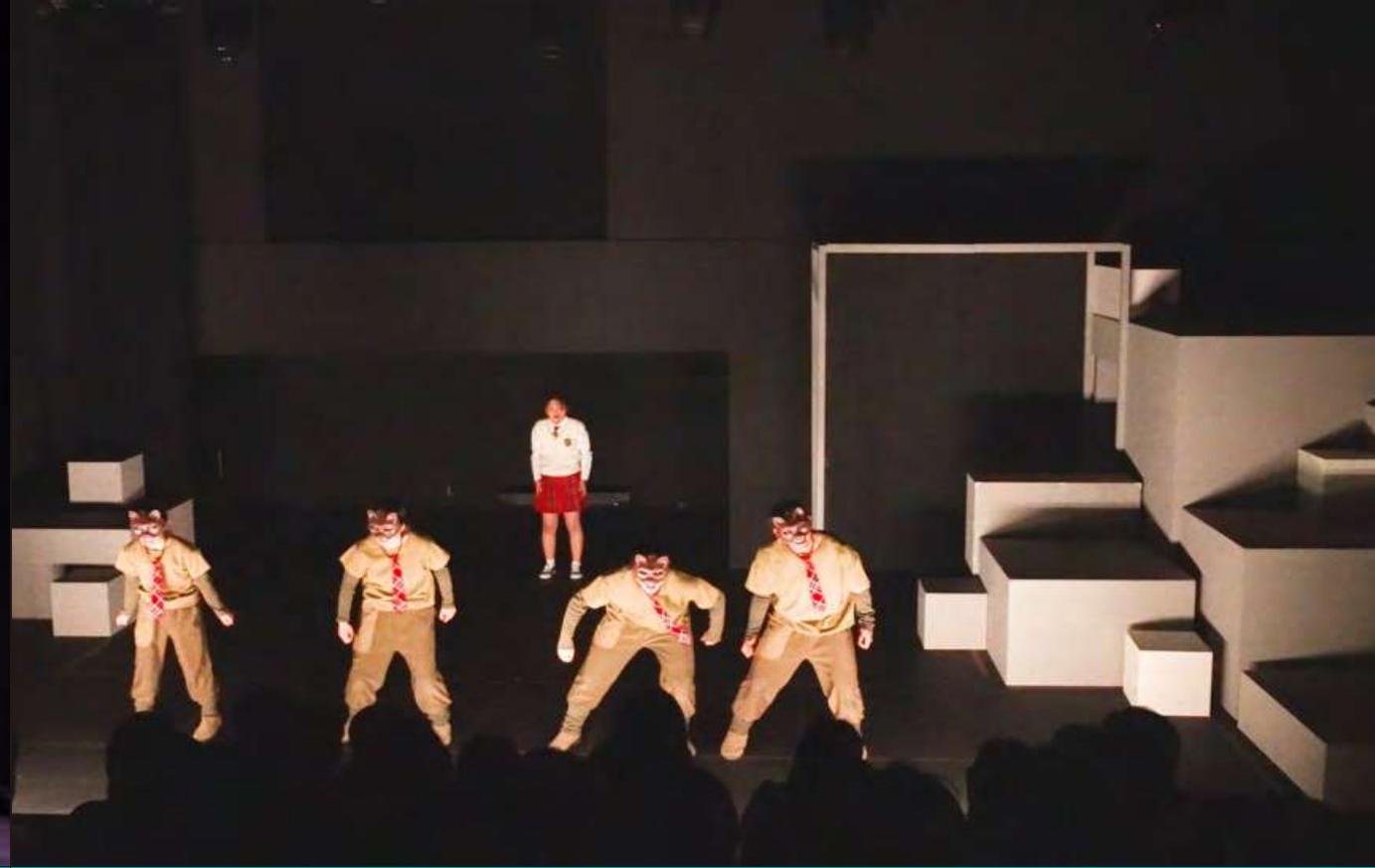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파동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영역을 품고 살아간다. 특히 청소년기, 그 복잡한 감정의 숲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잃고 방황하는 일은 흔하다. <아라의 세계>는 침묵에 갇힌 한 소녀가 시 감정기록시스템과의 만남을 통해 말로는 다 달을 수 없던 진심을 복원하고,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마주하며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여정을 그린다. 이 작품 속 시는 인간의 감정을 '기록'할 수는 있어도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라가 보여주는 진심—말 없는 춤, 눈빛, 손짓,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품는 용기—는 시조차 침묵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묻고 싶다. 상처는 왜 혼자 감당해야만 했을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시와 체스기물이라는 상징을 통해 '작고 연약한 말(폰)'에서 '킹'으로 성장하는 아라의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나'의 힘을 되찾는 이야기이자, 서로의 다름을 품으며 함께 존재하는 공존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다.

기획·연출 노트

이 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한 아이의 내면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은 마음. 아라는 말을 잃었지만, 침묵 속에서 오히려 진심의 힘을 배웁니다. 이 작품은 체스처럼, 움직이고 선택하고, 때로는 물러서며 나아갑니다. 이 여정을 통해 '감정이란 결국 연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아라의 이야기가 가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수많은 '아라들'에게 결코 혼자 아님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개인)명: 프로젝트그룹 응시(장이주)

일시: 2025.9.25.(목)-10.03.(금)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90분

관람연령: 만 11세(초등학교 5학년) 이상

총 관객 수: 474명 (유료관객 280명, 무료관객 194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작연출 장이주 드라마터그 김봄 음악 이승호 안무 이경구

무대미술 김혜지 영상 김요한 의상 채승희 조명 이건우 기획 한가을

조연출 전한별 그래픽 장선희 홍보디자인 방종혁 무대감독 황병걸

배우 강진선, 송윤, 안꽃님, 김성준, 최수운, 정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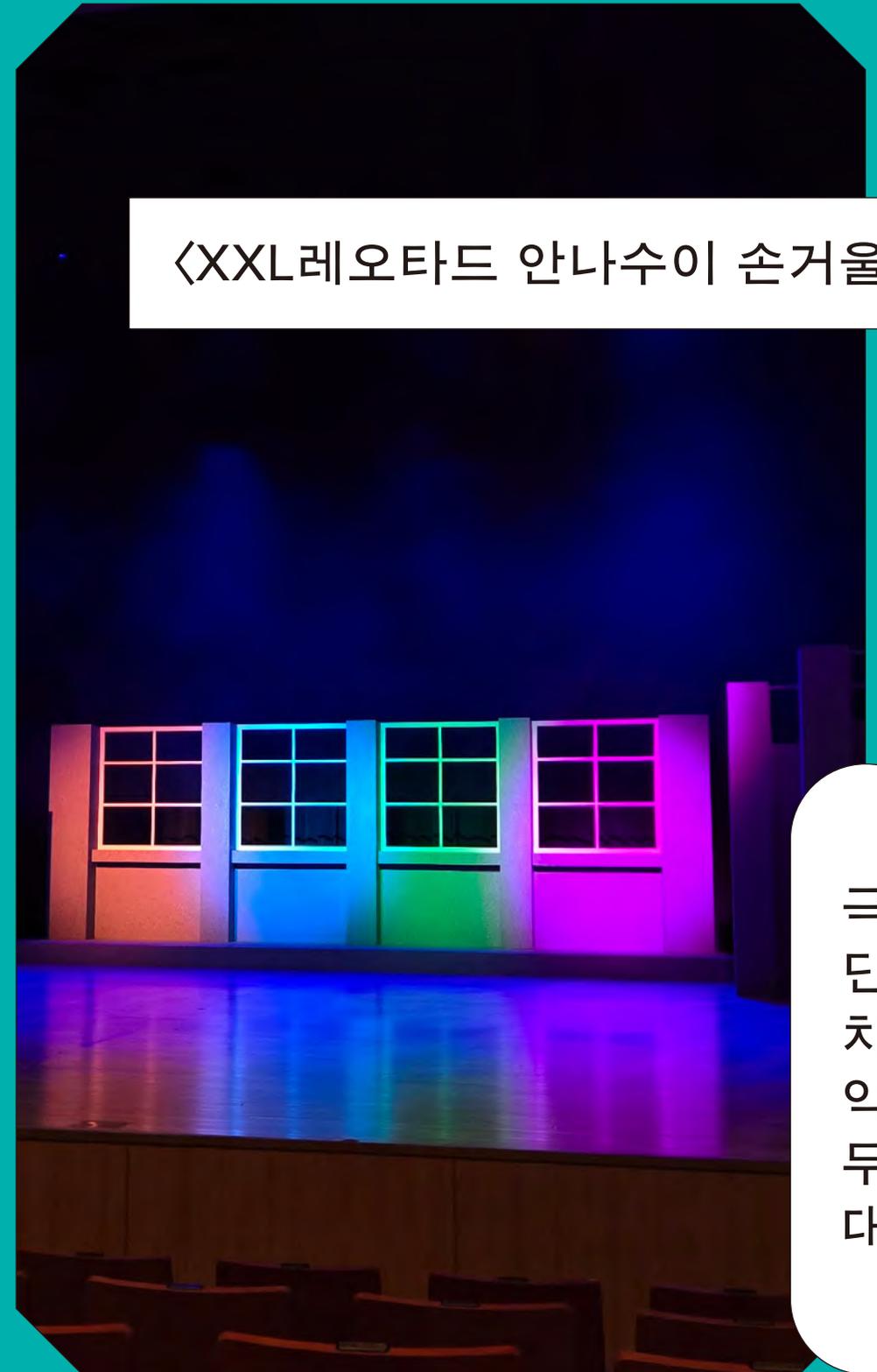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기획 단계에서 제시된 ‘감정과 언어의 회복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청소년의 서사’라는 목표를 일차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라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로 구조를 청하는 결말은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라는 주제의 실천적 구현으로서 예술교육적·심리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전반의 운영도 기획-창작-제작-공연의 연속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창작진의 협업 체계가 뚜렷합니다. 특히 무대공간의 물질성(박스 구조물)과 배우의 신체적 리듬을 결합한 연출은, 청소년극이 단순 서사극을 넘어 퍼포먼스적 체험극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신작제작

청소년

〈XXL레오타드 만나수이 손거울〉



극단치악무대



단체소개

**극단 치악무대**

극단 치악무대는 1990년에 창단되어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왔습니다. 연극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로 지역 주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창작집단과 교류, 협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관객들이 극장에 찾아와 연극 환경을 접하고 공연 관람을 통해 무대 위 배우와 관객들 사이에 역동적인 만남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는 극단입니다.

연락처

E-mail [artwct1990@gmail.com](mailto:artwct1990@gmail.com)  
 Instagram [@cccp9930](https://www.instagram.com/cccp9930)

작품소개

**“너는 그거 안 입고 버틸 수 있어?”**

준호에게는 여성용 레오타드를 입는 숨기고 싶은 취향이 있다. 입시경쟁에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던 준호에게 레오타드의 착용감이 심적 안정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과외모임 엄마들의 과도한 통제와 친구들의 선입견이 두려워 자신의 취향을 비밀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홈페이지에 레오타드를 입고 찍은 셀카가 얼굴이 모자이크 된 채로 올라온다. 그리고 그것을 올린 사람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체육수행평가에서 짝을 구하지 못했던 희주가 준호의 사진을 올렸던 것이다. 둘은 짝을 이루어 체육수행평가 과제인 2인 1조 댄스를 준비하게 된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평소 어울리지 않았던 희주와 춤을 추게 되면서 주변 친구들로부터 의심과 의혹을 받게 된다. 이 험난한 과정을 뚫어내고 준호와 희주는 무사히 체육수행평가를 마칠 수 있을까?

기획·연출 노트

**시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

연극은 다른 환경과 불공정한 경쟁에서도 불평 없이 어른들을 따라야 하는 이 시대 청소년들의 일상과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을 다루며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공유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무감각의 시대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타인의 존재를 인지하게 하는 ‘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공연입니다. 제도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하여지는 것들, 쉽게 말하면 부모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세상 잘 사는 법. 이 연극은 그 틀을 벗어날까봐 두려워 죽도록 애쓰며 매달리는 아이와, 틀을 벗어나 바깥을 엿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극단 치악무대

일시: 2025.6.5.(목)/ 6.11.(수)

장소: 원주 치악예술관/ 제천시 문화회관

러닝타임: 80분

관람연령: 13세 이상

총 관객 수: 1566명 (무료관객 1566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진: 작 박찬규 연출 권오현 무대제작감독 김희진 무대감독 김경환

조명감독 김병철 음향감독 신정문 영상기록/홍보제작 팀크로우(주)

조연출/음향오퍼 이은지 프로젝트매니저 김은정

출연 류세일, 이도경, 김대운, 김경환, 박영광, 이하린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남들과 다른 나만의 고민, 방식, 과정 등 다름의 이해를 다루는 주제가 명확한 희곡이 상당히 우수하였고 배우들의 연기와 장면이 연결되는 연출력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앙상블도 빛난 작품이었습니다. 색다른 시도보다 연극이 갖고 있는 전통적 매력을 잘 살린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 많은 부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훌륭한 주제와 그에 맞는 소재의 참신함이 돋보였습니다.

신작제작

청소년

극단  
성시어터라인



〈동화동경〉



단체소개

**극단 성시어터라인**

극단 성시어터라인은 1992년 창단하여 오직 연극만이 지닌 생생한 호흥과 깊은 울림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롭고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물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있는 연극전문단체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최초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주목하여 그들의 고유한 시선과 목소리를 담아 감각과 감성에 울림을 전하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극단은 청소년의 목소리와 시선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도달하는 과정을 포착하고 청소년의 빛나는 감각과 지성을 깨우고 내면 깊이 닿는 예술적 교감을 나누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glenny@naver.com](mailto:glenny@naver.com)  
 Homepage <https://sungline.github.io/>

작품소개

**“동화적 인물과 사건, 무대를 통해 부조리한 세상의 근원과 고독을 시적으로 통찰해내는 내공”**

**“모든 것이(연출,배우,스텝) 신춘처럼 기다려지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2013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분 당선작 심사평 中**

〈동화동경〉은 잔혹한 현실 속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연대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근원을 찾아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참혹한 전쟁과 환경파괴 속에서 생명이 유린되고 학대와 폭력이 만연한 지금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주체가 누구이며, 그러한 세상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획·연출 노트

**소외되고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내는 청소년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엿보다**

1789년 시집 ‘순수의 노래’에 실린 영국 시인 윌리엄블레이크의 ‘굴뚝 청소부’는 굴뚝 청소하는 어린 청소부의 슬픈 삶을 통해 아동 노동의 어두운 현실과 착취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화동경〉은 기존의 세계에 체험하는 무기력한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그리기보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적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화동경〉은 과거의 한 시집에서 발견한 작고 어린 모습의 소년에게 굳건한 의지와 견고한 내면의 강인함을 입혀 새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청소년이 공감하는 8가지 비밀스런 능력을 부여하여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 감각적으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극단 성시어터라인

일시: 2025.12.25.(목)-12.31.(수)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만 11세(초등학교 5학년) 이상

총 관객 수: 491명 (유료관객 342명, 무료관객 149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배우 심은우, 황규찬, 김태경, 김재호, 박성환, 김소강, 박해린,

김건우 드라마터그 김미정 제작PD 배명한 무대 송성원 조명 박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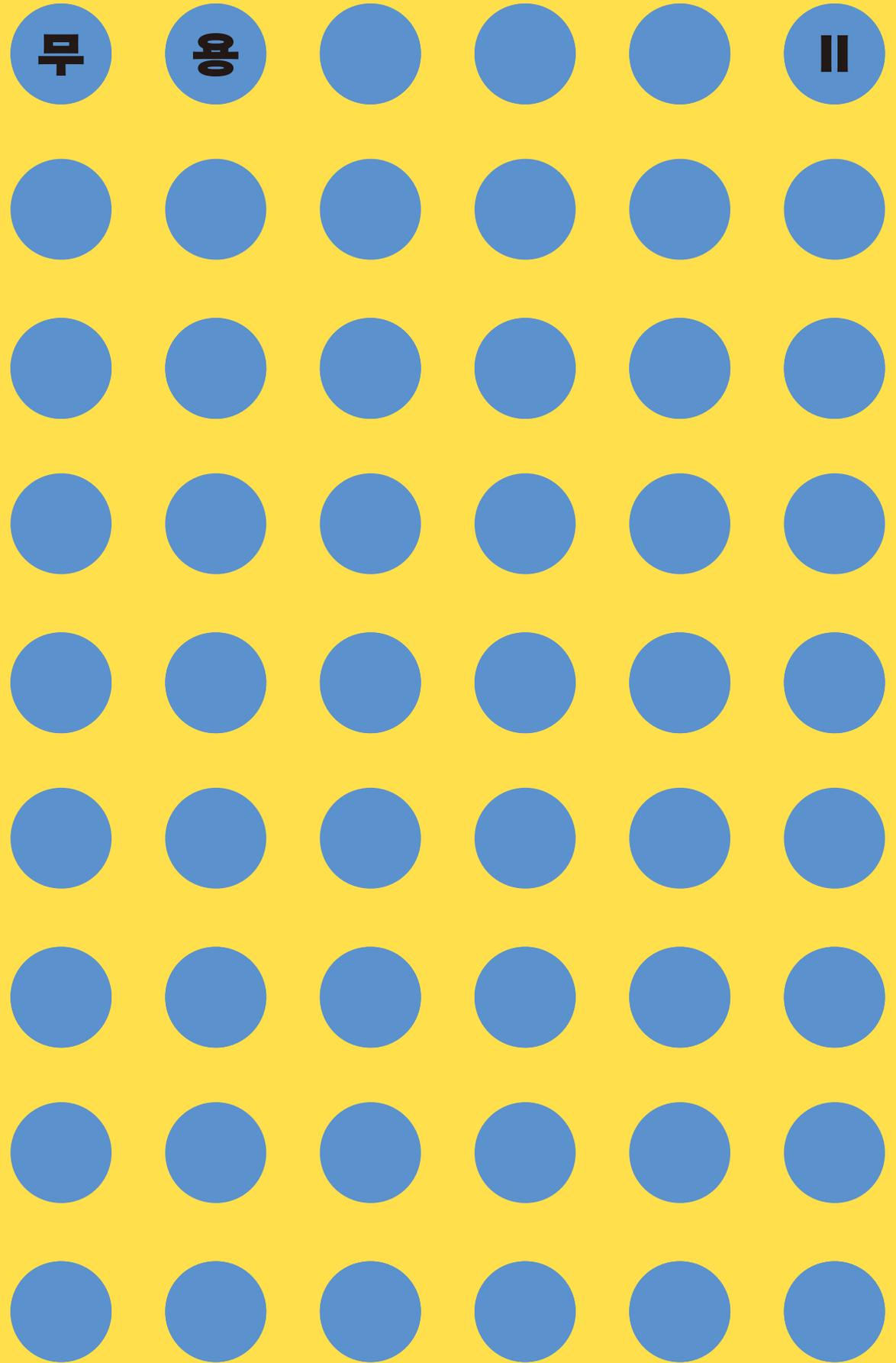
영상 김상호 움직임 권영호 작곡 김동식 음향 조소영 연주 김은혜

오리온 의상/소품 조현정 분장총괄 안혜라 조연출 심준 예술교육 현슬기

무대감독 김정우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동화동경〉은 극단 성시어터라인이 다년간 청소년극 제작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탐구한 결과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미학적 실험과 도전으로 양질의 청소년극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화동경〉은 주인공 소년을 연약한 피해자로만 설정하지 않고, 내적 서사와 비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욕망을 지닌 능동적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관객의 공감과 사유를 동시에 유도합니다.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통해 제시되는 서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확장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연출과 배우들의 설득력 있는 연기가 돋보이는 〈동화동경〉은, 내·외부의 다양한 제언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공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제작

어린이

## <핑크문의 요정들과 신, 데렐라>



서울발레시어터

@seoulballettheatre



단체소개

**서울발레시어터**

서울발레시어터는 '대한민국 발레의 창작과 대중화'를 모토로 1995년 창단되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열정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고전 발레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모던 및 컨템퍼러리 발레까지 폭 넓은 안무를 활용한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트렌드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sbt1995@daum.net](mailto:sbt1995@daum.net)  
 Instagram @seoulballettheatre  
 Homepage <https://ballet.or.kr>

작품소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 중의 하나인 <신데렐라>는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 다양하게 변형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신데렐라 이야기는 무려, 천 편에 가깝습니다. 이번 서울발레시어터 <핑크문의 요정들과 신, 데렐라>는 요정의 시점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펼쳐지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현 동시대적인 삶을 풍자한 재창작 작품입니다. 신데렐라 작품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시계 그리고 유리구두는 또 다른 상징성으로 부각 될 예정이며, 신데렐라, 왕자, 새 언니의 뽀얀 스토리를 벗어나 요정의 시점으로 해석 되어지는 인물의 묘사들이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즐거움이 될 것 입니다.

기획·연출 노트

<신, 데렐라>는 문화 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공연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꿈을 심어주는 데 목적을 둡니다. 배우와 어린이가 함께 소통하며 전개되는 참여형 구성은 어린이의 몰입도와 주도성을 높이고, 주요 오브제와 무대 영상을 통해 스토리의 시공간적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발레 특유의 우아한 움직임은 인간 신체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동화 속 판타지를 무대 기술로 구현해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공연은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서울발레시어터

일시: 2025.7.11.(금)-7.12.(토)

장소: 예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러닝타임: 70분

관람연령: 5세 이상

총 관객 수: 1,655명 (무료관객 1,655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덕문화관광재단

참여진: 예술감독 연출 최진수 안무 최진수, 박경희 부단장 신은석

이은선 지도 강성민, 황경호 기술감독 송주관 무대감독 양상건

조명감독 정중현 영상감독 최석주 음향감독 한정호 분장 이정수

의상실장 김애겸 디자인 이지훈 기획 김희중, 이주아, 도소이

투어매니저 이진기

### 심의위원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핑크문의 요정들과 신, 데렐라>는 산불로 인해 공포와 상실로 힘들어하는 영덕군민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처음 발레를 보는 관객들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와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우아한 몸짓은 환상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핑크문이라는 희망의 달을 선사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시선에서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와 무대에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여 완성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신작제작

어린이

## <키즈 도서관, 춤추는 기호 여행>

키즈도서관

# 춤추는 기호여행



기호를 따라 떠나는 몸의 여행, 춤의 도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댄스리서치애프랙티스랩



단체소개

**댄스리서치앤프랙티스랩**

댄스 리서치 앤 프랙티스 랩(Dance Research & Practice Lab)은 무용교육, 연구, 공연에 관심있는 연구자와 안무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무용의 이론과 실재를 넘나들며 무대를 포함한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와 공연을 기획하며 새로운 공간에서의 무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공동연구와 사업을 위해 창단된 댄스 리서치 앤 프랙티스 랩은 명칭처럼 무용 연구와 실행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활동을 연계하여 흥미롭고 열려있는 연구소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연락처

E-mail [drpl2025@gmail.com](mailto:drpl2025@gmail.com)  
 Instagram [@drpl2025](https://www.instagram.com/drpl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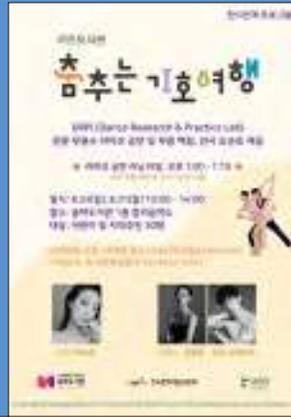
작품소개

〈키즈 도서관, 춤추는 기호 여행〉은 몸과 움직임을 읽고 기록하는 라반움직임분석(Laban Movement Analysis) 기호를 활용한 어린이 체험전시입니다. 전시관은 어린이가 스스로 기호를 보고, 읽고, 쓰고, 표현하고, 감상하며 놀이터에서 놀 듯 구성했으며,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무용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라반움직임분석 기호의 몸 부위별 기호와 기본 움직임 기호 12가지를 이용하여 움직임 기호를 활용한 무용수의 영상을 함께 제공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일요일에는 12가지 움직임 기호를 움직임으로 표현한 무용수들이 정해진 시간마다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공연 후, 도슨트의 전시설명이 함께 제공되어 무용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연계형 전시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써 라이브 무용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형 무대로서 작동합니다.

기획·연출 노트

〈키즈 도서관, 춤추는 기호 여행〉은 어린이의 흥미와 예술 경험을 동시에 충족하는 무용예술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가 쉽게 무용에 다가올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를 제공함으로써 무용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체험전시를 통한 유연한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어 통합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돕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16일의 전시와 2회의 무용공연 및 전시설명으로 무용 향유저변을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객과 지역 주민 등 전시 대상 확대에 문화 양극화 현상 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일상생활 공간인 도서관 내 전시공간 활용을 통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의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Dance Research & Practice Lab  
 일시: 전시 2025.8.21.(수)-9.4.(목), 공연 2025.8.24.(일), 8.31.(일)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도서관 1층 창의공작소 갤러리  
 러닝타임: 15분 \*공연 이후 무용 체험 및 전시 도슨트 진행  
 총 관객 수: 250명 (무료관객 250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도서관  
 참여진: 기획 및 운영 윤지은, 허가영 안무 최수진  
 무용수 이윤희, 리양 시후아이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최근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서 문화적, 교육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울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움직임을 기호로 표현하는 무보가 다소 생소한 소재일 수 있으나,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무용에 기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선보이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해, 명확한 설명과 체험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좋은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신작제작

어린이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댄스

〈부엉이의안경〉

@darkcirclesdance



단체소개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댄스**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는 안무가 겸 무용수 조현상을 중심으로 2010년 창단한 전문무용단체로, 발레 움직임을 기본으로 한 현시대적인 안무를 선보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을 모토로, 일상 속에서 찾은 소재를 작품화하여 남녀노소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무용계에서 꾸준하고 진지한 작업 방식과 단체 운영을 자랑하며, 대표자 포함 8명의 젊은 무용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발레축제, 창작ing 등 다양한 국내 예술 축제 참가를 통해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창단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기획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중국, 일본, 스웨덴, 미국 등 국제 무대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몸의 협주곡>, <평범한 남자들>, <웃음을 잃지 마세요>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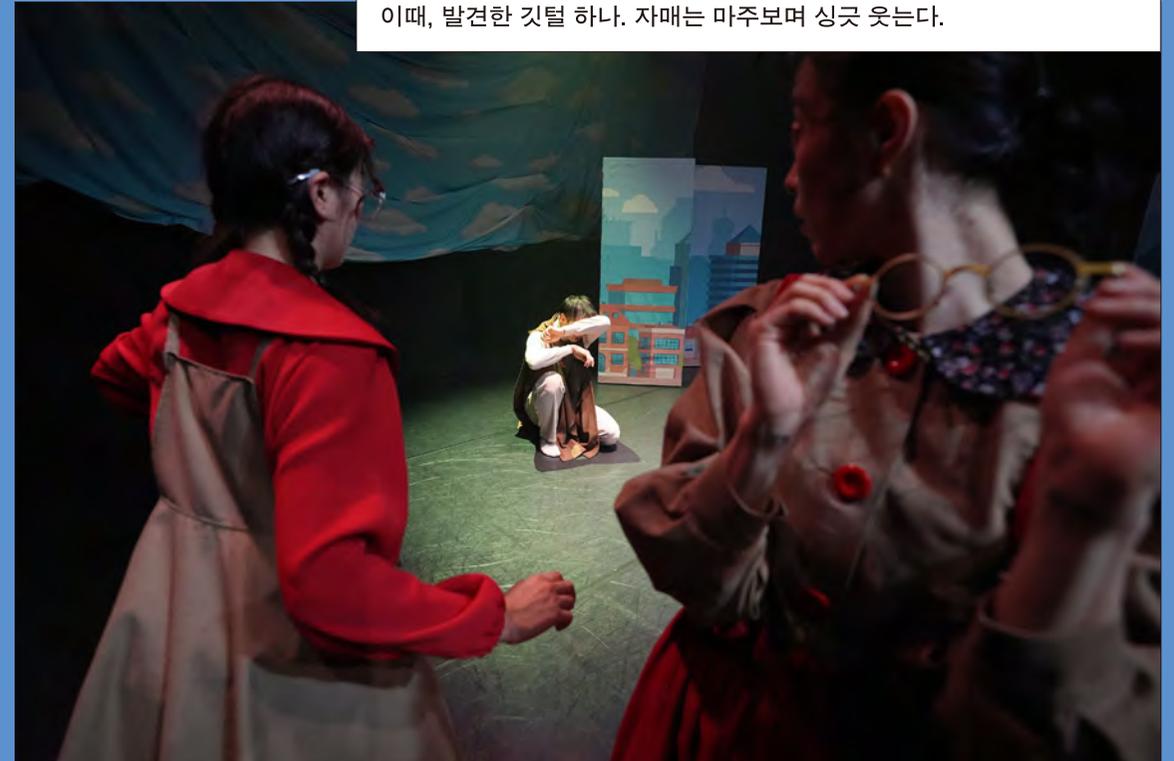
E-mail [darkcirclesdance@gmail.com](mailto:darkcirclesdance@gmail.com)  
 Instagram [@darkcirclesdance](https://www.instagram.com/darkcirclesdance)  
 Homepage <https://www.darkcircles.dance/>

연락처

작품소개

**잃어버린 부엉이의 안경을 찾아주세요!**

깜깜한 밤, 자매는 구름이 그려진 파란 이불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든다. 꿈속, 비행 중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추락한 부엉이가 자매의 방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자매는 부엉이와 친구가 되어 부엉이의 잃어버린 안경을 찾아주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난다. 함께 겪는 유쾌한 순간들과 위태로운 부엉이의 이야기. 마침내, 안경을 찾았다! 자매와 친구들 덕분에 부엉이는 다시 하늘 높이 신나게 날아오른다. 꿈에서 깬 자매는 어젯밤 일들이 너무 생생해 어리둥절하다. 이때, 발견한 것털 하나. 자매는 마주보며 싱긋 웃는다.



기획·연출 노트

<부엉이의 안경>은 창작자가 어릴 적 실제로 부엉이의 안경을 찾아주러 떠났던 기억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매년 수많은 새들이 인공구조물,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탕으로, 극 중 자매가 꿈속에서 부엉이의 안경을 찾아주기 위해 떠나는 상상 가득한 여정을 그렸습니다. 작품 속 여정을 통해 어린이 관객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우며 생명과 자연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다스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일시: 2025.11.21.(금)-11.23.(일)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40분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총 관객 수: 160명 (유료관객 21명, 무료관객 139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안무 민경림 연출 조현상 출연 민경림 박재혁 봉지은 이다혜  
 정민 정현 음악감독 송혜영 드라마터그 이건희 무대디자인 김현민  
 의상디자인 이채령\_레트로드 무대감독 박철수\_결작 조명디자인 임지영  
 무대기술감독 이도엽\_결작 사진, 영상기록 옥상훈 디자인그래픽 이한수  
 프로듀서 김보람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부엉이의 안경〉은 발레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무용단 다스서클즈 컨템포러리의 초연 작품입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동시대적 감각과 신체 언어를 바탕으로 일상의 감정과 사회적 이슈를 탐구해 왔으며, 움직임과 이미지, 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관객과의 감각적 소통을 지향해 왔습니다. 이러한 창작 방향성을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확장한 이번 시도는 단체의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됩니다. 언어에 의존하기보다는 몸짓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용극 형식을 선택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시대적 이야기 속에 환경 보호라는 교훈적 주제를 자연스럽게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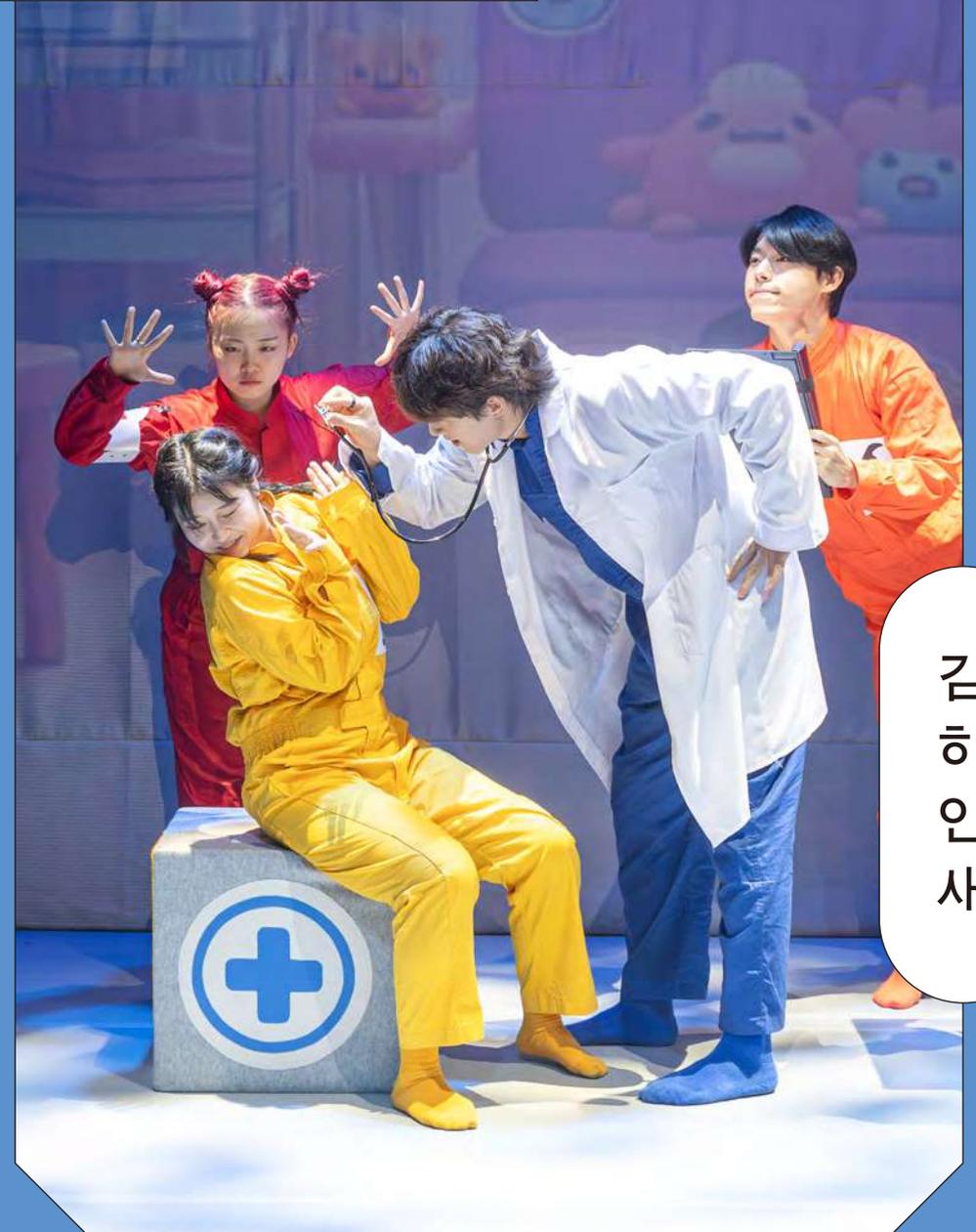


신작제작

어린이

**어린이무용극**

**〈몽글몽글 꿈공장〉**



김하얀새

비평문 QR  
 꿈과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 감각적인 무대  
 김혜라(무용평론가)





작품소개

무용과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만남  
 꿈공장에서 감정을 만나고, 몸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어린이 감정 탐험 무용극**

몽글몽글 꿈공장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과 감정을 '잠자는 동안 꾸는 꿈'이라는 판타지적 공간과 무용으로 풀어내는 창작 무용극입니다.

아이들의 잠꼬대를 받아 꿈을 만들어 보내는 특별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몽글몽글 꿈공장. 이 공장에는 여섯 명의 개성 넘치는 작업자들이 함께 일합니다. 희망을 만드는 희망이, 악몽을 다루는 앙몽이, 애정을 전하는 애몽이, 상상력을 펼치는 랑몽이, 그리고 듬직한 공장장과 귀여운 꿈 배달자 몽몽이까지. 이들은 매일같이 아이들의 감정을 담은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아이들의 잠 속으로 배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공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악몽을 담당하는 앙몽이가 사라진 것!

흩어져버린 작업자들은 앙몽이를 찾아내고, 멈춰버린 꿈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기획·연출 노트

여러분은 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꾸는 것과 이루는 것. 어찌 보면 어긋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 평균적이라면 하나는 지극히 수동적이지만 안식을 주며, 다른 하나는 능동적이며 고난을 수반하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왜 꿈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본 작품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 꿈의 접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일의 꿈을 오늘 밤 선물할 수 있다면 꿈을 이뤄 가는 과정이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창작자소개

**김하얀새**

BTS - The Planet 모션 캡처 안무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융·복합 주제공연 안무 연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신비로운 여신수업' 안무 감독  
 고등학교 체육교과서 [재즈댄스] 이론 자문 및 출연  
 서울시 지원사업 서울 뮤직&댄스 페스티벌 예술 감독  
 전) POZ DANCE THEATRE 단원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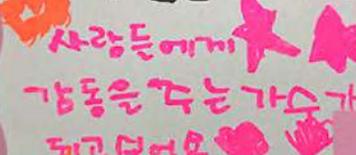
E-mail xxxna@naver.com

# 너의 꿈을 만나봐!



너의 꿈을 적어봐!  
\* 악세사리 디자이너!  
\* 

너의 꿈을 적어봐!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어 실감나게 중계하고 싶어요. 

너의 꿈을 적어봐!  
사랑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너의 꿈을 적어봐!  
  
첫 비행기 조종사 

너의 꿈을 적어봐!  
나의 꿈은 간호사입니다.   
필사본들을 친목회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너의 꿈을 적어봐!  
저의 꿈은 야구선수, 축구선수입니다.   
이제 무척 유명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시처럼 되고 싶습니다.

너의 꿈을 적어봐!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2025년 공연정보**

단체(개인)명: 김하얀새

일시: 2025.7.11.(금)-7.16.(수)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50분

관람연령: 12개월 이상

총 관객 수: 660명 (유료관객 179명, 무료관객 481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연출/안무 김하얀새 출연 최가은, 최연, 박재현, 신원국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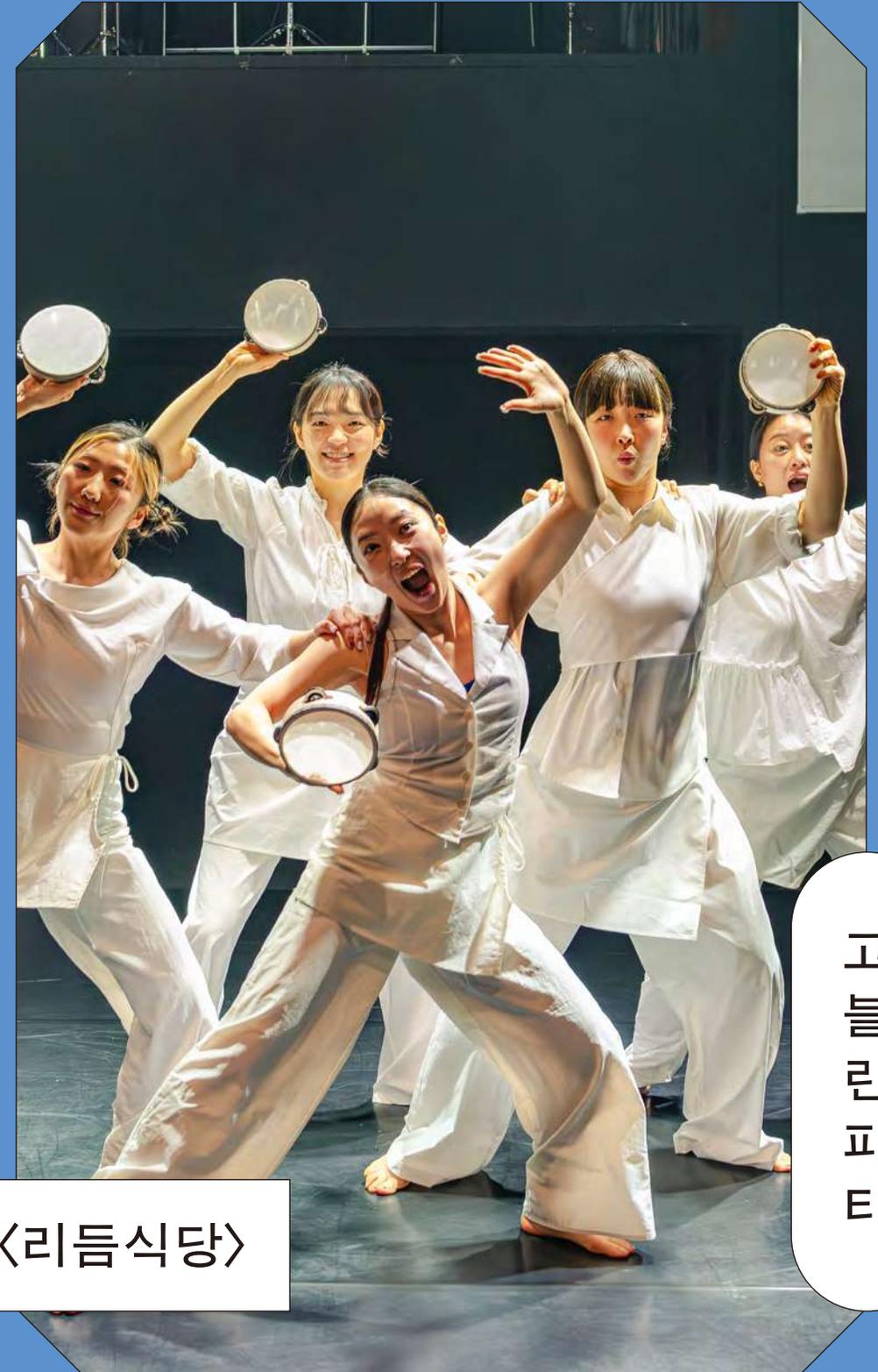
〈몽글몽글 꿈 공장〉은 영유아를 위한 무용극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각 장에 맞는 맞춤형 스토리를 통해 꿈을 다양하게 해석한 작품입니다. 의사나, 선수, 요리사와 같은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희망도 있지만, 악몽이라는 아이들이 흔히 꿀 수 있는 꿈을 통해 불안과 무서움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주제로 마무리합니다. 3D 애니메이션과 무용수들의 대사로 재미와 흥미를 끌어냄과 동시에, 각 꿈을 스토리로 섬세하게 풀어가 주며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희노애락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이 적어주는 꿈의 이야기를 극으로 끌어오는 듯한 설정은 꿈공장 스토리의 확장 가능성으로도 보입니다.

비평문 QR  
꿈과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 감각적인 무대  
김혜라(무용평론가)



신작제작

어린이



〈리듬식당〉

고블린 파티

@goblin\_party

단체소개

**고블린파티**

비상한 재주로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심술궂은 행동과 시선을 가진 한국의 도깨비들(GOBLIN)이 모인 정당(PARTY)입니다. 특별한 대표 없이 전 멤버가 안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고블린들의 파티에는 작품과 작품을 제작한 방향제안자와 공동창작자 그리고 작품을 함께하는 관객들이 존재합니다. 컨템포러리 댄스를 기반으로 하여 관객과의 소통에 가장 큰 중점을 두되 관객의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E-mail [goblinpartykorea@gmail.com](mailto:goblinpartykorea@gmail.com)  
Instagram [@goblin\\_party](https://www.instagram.com/goblin_party)

연락처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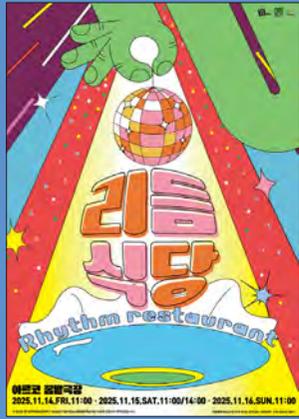
〈리듬식당〉은 ‘리듬을 먹는 식당’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현대무용 공연이다. 밥을 먹는 행위처럼, 하나의 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무대 위에 올렸다. 탬버린, 싱잉볼, 종이, 캐스터네츠, 젓가락, 후라이팬, 고무장갑까지 모든 사물이 악기가 되고, 모든 몸이 리듬이 된다. 이 무대는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는 건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함께한 리듬과 마음의 온기가 증명한다.

기획·연출 노트

〈리듬식당〉은 어린이 공연의 가능성을 다시 묻는 시도입니다. 아이들에게 리듬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고블린파티는 이번 작품을 통해 ‘관객의 연령’이 아닌 ‘감각의 깊이’로 공연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유아, 초등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에 비해 보다 복합적이고, 강렬하며, 상상력 가득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리듬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믿음 아래, 이 공연은 그들의 내면 속 ‘감정의 미각’을 깨워주는 하나의 요리입니다. 음악처럼, 무용처럼, 밥처럼. 〈리듬식당〉은 결국 ‘함께 먹는 리듬의 시간’입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고블린파티

일시: 2025.11.14.(금)-11.15.(토)

장소: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50분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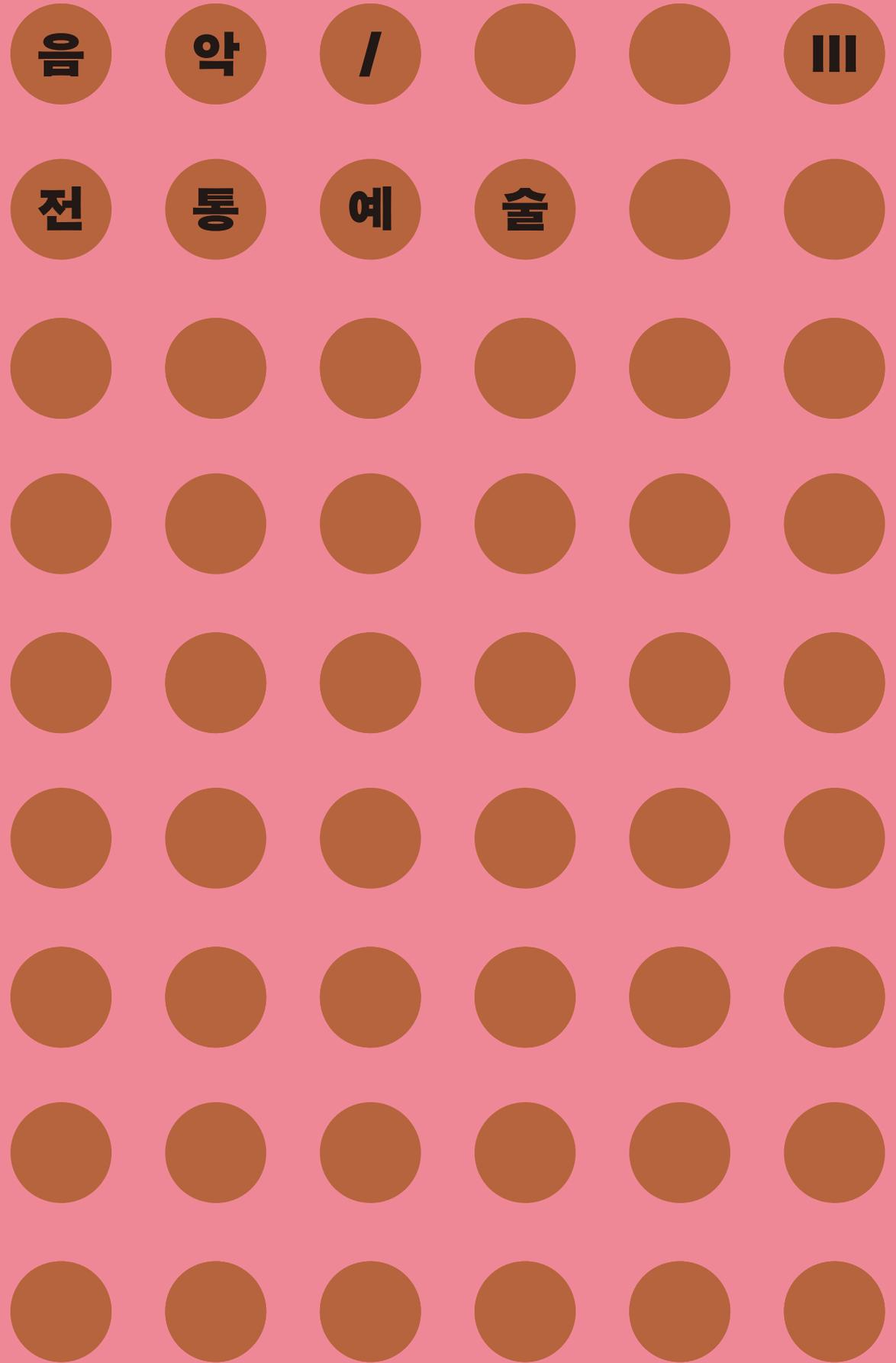
총 관객 수: 381명 (유료관객 19명, 무료관객 362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안무 지경민, 임진호 공동창작 및 출연 임성은, 이경구, 안현민, 이연주, 박소진, 김민주 퍼커션 김현빈 가야금 김민정 프로듀서 이영찬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가정에서 익숙한 요리 과정을 리듬과 움직임으로 풀어내 어린이들이 현대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구성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참여 예술가의 호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어린이 관객의 모습에서 높은 집중도와 몰입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블린파티의 춤은 몸짓 자체를 언어처럼 사용하는 직관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며, 어린이들이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먼저 '느끼는' 공연예술로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예술적 완성도와 교육적 가치를 고루 갖춘 어린이 무용 공연에 적합한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2차제작

어린이

오페라팩토리



어린이오페라

〈빨간모자와 늑대〉

@opera\_factory\_



단체소개

**오페라팩토리**

오페라팩토리는 2013년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수십 편의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며 창조와 도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자유로운 창작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오페라 제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사업, 갈라 콘서트, 오페라 융합 콘텐츠 등 공연예술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쟁력을 갖춰 왔습니다. 오페라팩토리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창작 오페라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여, 오페라를 보다 친숙하고 감동적인 예술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페라 애호가는 물론,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편견을 깨고,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전문 예술단체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E-mail [operafactory@naver.com](mailto:operafactory@naver.com)  
 Instagram [@opera\\_factory\\_](https://www.instagram.com/opera_factory_)

연락처



작품소개

학교에 다녀온 빨간모자는 저녁을 배불리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숙제하라는 엄마의 말씀에 투덜대며 방으로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된 빨간모자! 할머니께 직접 음식을 들고 가겠다고 엄마의 허락을 받고 집을 나선다. 엄마는 빨간 모자에게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딸기를 따느라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빨간 모자는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고 숲속에서 딸기를 따느라 시간을 보낸다. 그때, 저 멀리서 빨간모자를 지켜보던 늑대가 눈앞에 나타난다! 위험에 빠진 빨간모자는 과연 할머니께 무사히 음식을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

기획·연출 노트

기존 흥행작인 <빨간모자와 늑대>는 2차 제작을 통해 음향, 무대, 연출 등 핵심 요소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관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대사 전달력 부족, 참여형 장면의 안전성, 무대 시각 요소 등 기존 공연에서 드러난 개선 지점을 구조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음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출연자의 대사와 노래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정했고, 시각적 풍성함을 높이기 위해 잔디 연출을 중심으로 무대 세트의 질감과 공간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완 작업을 기반으로 작품이 지닌 교육성과 예술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관람 편의성과 안전성, 몰입도를 크게 높였으며, 과거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한 작품의 강점을 이어가면서 재공연의 가치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오페라팩토리

일시: 2025.7.12.(토)-7.13.(일)

장소: 종로아이들극장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총 관객 수: 303명 (유료관객 93명, 무료관객 210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진: 예술감독 박경태 연출 조은비 지휘 박해원 음악코치 조은혜

첼로 황지연 플룻 김문수 타악기 강다애 안무 김연화 무대디자인 신나경

의상디자인 이다혜 조명디자인 손민영 분장디자인 김진영 조연출

송우미 무대감독 김송미 제작PD 이승민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소극장에서 보기 쉽지 않은 오페라 형식의 공연입니다. 빨간모자, 늑대, 할머니 역할을 하는 배우들의 역량이 우수했으며 무대도 여러 장면으로 변화하는 변환형 무대로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딸기를 싫어하는 늑대라는 설정을 통해, 딸기를 던져 늑대를 무찌른다는 내용을 더하여 원작과 차별화하였습니다. <빨간모자와 늑대>는 어린이들에게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다시 공연장을 찾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신작제작

어린이



영아츠컴퍼니

판타지 가족오페라

<신비한 시간여행>:

잃어버린 세종의 보물을 찾아라!



단체소개

**영아츠컴퍼니**

영아츠컴퍼니는 클래식 음악의 진흥을 선도하는 클래식 전문 제작사로서, 창작 공연 문화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예술적 접근을 통해 시, 문학, 무용, 미술, 연극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음악과 융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작진과 제작진, 오케스트라 및 협연자들로 구성된 영아츠컴퍼니는 공동작업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고, 소외된 예술을 발굴하여 클래식음악과 함께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아츠컴퍼니는 공연 및 전시를 통해 지역 내외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예술계에 전문적인 제도를 구축해 발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yac2021@naver.com](mailto:yac2021@naver.com)  
 Instagram [@youngarts\\_company](https://www.instagram.com/youngarts_company)  
 Homepage [www.youngarts.co.kr](http://www.youngarts.co.kr)

작품소개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완료하고, 한글을 반포하기 하루 전, 해례본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한다.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원리, 창제과정이 쓰인 책으로 반포를 위해 세종대왕이 쓴 중요한 훈민정음 원본 책이다. 이 사건으로 세종대왕은 큰 혼란에 빠지고, 세종대왕을 지키는 무사 무휼은 실종된 해례본과 금속활자를 찾아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2024년. 인사동에서 발견된 한글 활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온 루나와 루나의 친구 다미는 경복궁을 구경하던 중 루나와 다미는 장난을 치다 경회루 연못에 빠지게 된다. 수영을 못하는 루나와 다미는 허우적거리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연못에서 구출된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더니 집현전 앞에서 무사 무휼이 칼을 들고 쳐다보고 있었다.

‘어디서 온 놈들이냐’

특이한 모습을 한 루나와 다미를 본 무사 무휼은 그녀들을 경계한다. 세종대왕에게 데리고 간 무사 무휼. 세종대왕과 루나와 다미는 이야기를 나누다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게 됐음을 알게 되고 세종대왕과 함께 루나와 다미는 과거의 흔적을 추적하게 된다. 해례본과 금속활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여정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힘들게 찾은 해례본. 찢겨져 있는 한 장으로 인해 미래가 바뀌게 되는데...

과연 루나와 다미는 해례본과 금속활자를 다시 되찾고, 미래를 돌릴 수 있을까?

기획·연출 노트

본 작품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그 철학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의미를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판타지 오페라로 풀어냅니다. 사실과 허구가 교차하는 서사 속에서 세종대왕, 조선의 무사, 그리고 미래에서 온 소녀 루나와 다미가 함께 해례본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며, 한 글자의 부재가 만들어낸 왜곡된 미래와 한글이 온전히 반포된 현재의 가치를 대비시킵니다. 전통 오페라 형식을 기반으로 뮤지컬, 드라마, 안무, 퍼포먼스 등 현대적 표현과 국악·재즈·탱고·시티팝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결합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현대적 창작오페라를 구현하며, 한국의 일상적 공간과 경복궁을 오가는 시간여행을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공동체를 잇는 존재의 힘임을 전함으로써 오페라에 대한 무거운 벽을 넘어 관객, 특히 가족 단위와 어린이들이 한국 전통문화와 한글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문화유산이 현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주)영아츠컴퍼니  
 일시: 2025.7.19.(토)/ 8.29.(금)  
 장소: 부산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GS칼텍스예울마루 대극장  
 러닝타임: 80분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총 관객 수: 870명 (유료 400명, 무료 470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진: 루나역 정수연 다미역 박현아 세종대왕역 김지훈 무휼역 김준엽  
최만리역 김병희 박문수역 홍승범 이한규역 이준성 정종혁 원선주  
양동현 양진혁 연출 장희원 작곡 김태영 조명 전규상 오페라코치 이기쁨  
조연출 이소현 무대감독 김효영 안무감독 김시울 무대디자인 오의재  
분장 한영신 음향감독 한정훈 음향감독 류지현 무대의상디자인 조성현  
 소품제작 이재민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적절한 예산 활용과 완성도 높은 무대 소품 및 무대미술이 인상적이었으며, 영상 활용을 통해 무대장치 확장을 효과적으로 시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스토리의 구성과 연결 또한 참신해 역사적 이해가 필요한 어린이·청소년 관객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행하는 대사를 활용한 관객참여형 연출은 즐거움을 주는 시도였으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을 잘 지키다면 작품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평문 QR  
 어린이의 마음을  
 헤아리기  
 윤무진(음악 칼럼니스트)



신작제작

어린이

**풍물패 청음**

**아동풍물연희극**

**<풍물이 동동-소고라서 좋아!>**





단체소개

**풍물패 청음**

풍물패청음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빚어내는 전통공연예술단체입니다.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공연을 기획·제작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축제, 국제교류 등을 통해 전통 예술의 가치를 폭넓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airfly0410@naver.com](mailto:airfly0410@naver.com)  
 Instagram [@cheongeum](https://www.instagram.com/cheongeum)  
 Homepage [www.풍물패청음.com](http://www.풍물패청음.com)

작품소개

**키가 작아도 괜찮아! 소리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  
 풍물악기들의 신명나는 장기자랑, 미디어아트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무대**

〈소고라서 좋아〉는 소리가 작고 몸집이 왜소한 소고라는 악기가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게 풀어낸 풍물연희극입니다.

기획·연출 노트

소고라서 좋아하는 ‘자존감’이라는 보편적 교육 메시지를 ‘소고’의 상징성과 결합하여 아동 관객의 공감대와 몰입도를 제고한 풍물연희극입니다. 미디어아트 및 LED 퍼포먼스를 도입하여 전통 연희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고, 아동 관객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통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교육 기관의 재관람 의사를 확인하며 전통 예술의 지속 가능한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풍물패청음

일시: 2025.11.18.(화)-11.19.(수)

장소: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총 관객 수: 846명 (유료 626명, 무료 220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진: 극본·연출·출연 권정현 사업관리·연희 양승주

조연출·연희 김경우 연희 조영빈, 김형구, 여정록

음향 오퍼레이터 이소희 조명 오퍼레이터 이건희(스카이라이트)

무대스태프 석재홍 보조인력 송지혜, 양수빈, 황은미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본 공연은 풍물을 어린이에게 '신나는 소리'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 구조와 캐릭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악기별 성격과 역할을 부여해 장단과 소리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전달했으며, 특히 소고를 중심으로 용기·자신감·협동과 대동성의 가치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 교육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LED 의상과 영상 요소 등은 전통을 기반으로 동시대 관객에게 다가가려는 실험적 시도로, 지속적인 작품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함안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되기를 기대합니다.

**<괴물도감>**



연희공방  
음마갱깽



단체소개

**연희공방 음마갱깽**

남사당놀이 탈미인형극 창·제작단체 “연희공방 음마갱깽”  
 음마(音摩)는 소리를 어루만져 음악을 만들고, ‘갱깽’은 대장간에서 나는 소리의 의성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마갱깽’은 인형 및 인형막, 악기 등 공연에 필요한 오브제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음마갱깽’의 단원들은 풍물, 탈춤, 무속음악, 전통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 중에도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중 탈미(인형극)를 중심으로 온고지신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현대에 맞는 풍자와 해학을 인형극을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 인형제작방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전통인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표현과 움직임이 가능한 전통인형을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국악과 인형극을 접목한 ‘음마갱깽’만의 유일한 오브제극을 알리고자 합니다.

연락처

E-mail [pogri1@hanmail.net](mailto:pogri1@hanmail.net)  
 Instagram [@eumma\\_kr](https://www.instagram.com/eumma_kr)  
 Homepage <https://www.puppet-eumma.com/>

작품소개

한국·인도·일본·중국의 설화 속 아시아 괴물들이 총출동하는 판타지 무대. 전신인형, 가면 인형, 테이블 인형까지. 형태와 크기가 모두 다른 인형들이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살아 움직인다.

겁없고 장난기 많은 소년 ‘오늘이’는 호환마마를 잃게 하는 무서운 명신손님네를 대접하기는커녕 동네 아이들 모두 모여라 오늘은 무시무시한 명신 손님네 오시는 날이다. 아이들에게 천연두를 잃게 만든다는 명신손님네가 조선 땅에 찾아왔다. 장난꾸러기 주인공 ‘오늘이’는 예의를 차리기는 커녕 장난을 치다가 그만 괴물세계에 떨어지고 마는데...

오늘이가 무사히 괴물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명신손님네의 막내동생 ‘철현이’를 찾아 동이 트기 전에 돌아올 것. 무시무시한 괴물들 사이에서 오늘이는 과연 무사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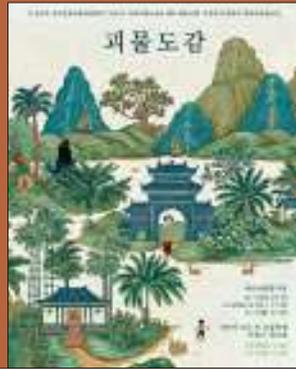
기획·연출 노트

‘연희공방 음마갱깽’은 전통 인형극 ‘탈미’의 현대적 재해석과 확장을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15차례의 실험과 공연을 통해 쌓인 경험은 이번 <괴물도감>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작품은 탈미의 표현 영역을 넓히기 위해 테이블 인형, 전신 인형, 가면 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인형을 선보이며, 소극장 규모의 공간에서도 생동감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설화와 신화 속 괴물을 조사하고 재창작하여, 탈미의 캐릭터 세계를 ‘아시아 괴물 유니버스’로 확장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인형극이 지닌 상징성과 민속적 정서를 새로운 문화권의 이야기와 결합시키며, 관객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상상력을 선사합니다.

<괴물도감>은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전통과 예술의 깊이를 전하는 공연입니다. 화려한 프로젝션 맵핑, 신비로운 음악, 빠른 전개와 유머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현대적 연희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연희공방 음마갱깽’은 전통 탈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속에서 확장 가능한 한국 인형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연희공방 음마깡깡

일시: 2025.12.5.(금)-12.7.(일)

장소: 아르코꿈밭극장

러닝타임: 70분

관람연령: 만 4세 이상

총 관객 수: 197명 (유료관객 94명, 무료관객 103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밭극장

참여진: 예술감독 및 인형제작 음대진 연출 및 영상 맵핑 김지훈

총괄 PD 및 작곡, 음악감독 박미향 극작, 영상 및 홍보물 디자인

이미림 배우 음대진, 방성혁, 김용훈, 윤현진, 이동현, 백승태,

김도혜, 서장호 악사 박미향, 조봉국, 김문고(김주현), 김현승

무대, 조명 디자이너 김려원 음향 김재희 사진 최인호 영상 박승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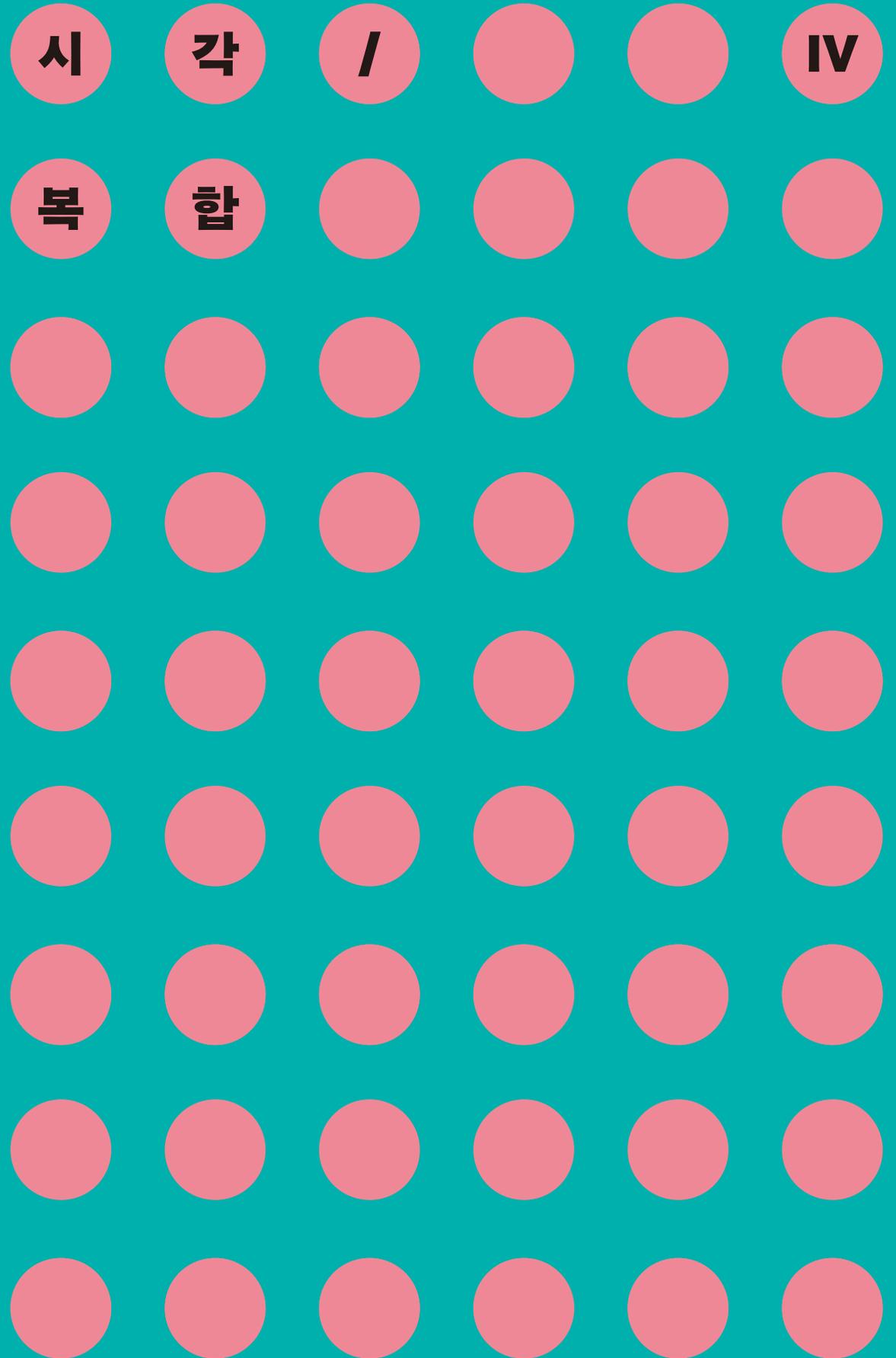
크루 김남수 행정 박미덕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도깨비’로 한정되곤하는 어린이 전통(연희)극의 캐릭터를 동아시아 국가의 ‘괴물’들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괴물세계(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세계)의 시각적 구현이 인상깊으며, 극 중 관객이 참여하는 ‘신발던지기’의 과녁 연출이 참신합니다. 또한 <나만의 괴물인형 만들기> 워크샵을 통해 한국 전통 인형 ‘덜미인형’을 소개하고,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지지해주어 우수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비평문 QR  
윤리적 상상력과 다문화  
신화의 여정  
황승경(연극평론가)



신작제작

어린이

주식회사 포밍부스



<안녕, 잠!>

@forming\_booth



단체소개

**주식회사 포밍부스**

미디어아트와 인터랙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수단이 아닌 감정과 감각을 매개하는 도구로 삼으며,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예술과 더욱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해왔습니다.

물리적 공간이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 예술경험을 설계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정서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설계합니다. 주요 이력으로는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 선정작 『일상을 덜어 꿈결에 담다』, 2021 차세대열전 선정작 『감각의 감각』 등이 있으며, 예술성과 사회적 실천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mail [formingbooth@gmail.com](mailto:formingbooth@gmail.com)  
 Instagram [@forming\\_booth](https://www.instagram.com/forming_booth)

연락처

작품소개

〈안녕, 잠!〉은 감정 조절이 서툰 아동이 '잠'과 '꿈'이라는 방식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그린 참여형 공연이다. 시각·청각·촉각 중심의 감각적 연출과 RFID 기반의 팔찌형 참여 장치 'Dreamloop'가 결합되어, 어린이 관객이 극 전개에 직접 개입하며 감정 서사를 따라가도록 설계되었다. 작품은 어린이의 일상에서 비롯된 감정 억압에 주목하여, 수면 직전의 방 안을 무대로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꿈의 세계를 여행하며 감정을 직면하는 서사를 풀어간다. 작품은 10살 지원이가 겪는 진로에 대한 갈등과 부모와의 소통 문제, 감정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수면 부족 문제를 조명한다. 지원이는 현실에서의 갈등을 꿈속에서의 여정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분노를 해소하며, 자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 나가게 된다. 관객들은 지원이와 함께 감정적 장애물을 넘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기획·연출 노트

**내 마음 읽기가 어려운 사회, 어린이의 감정 조절**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과도한 경쟁과 사회적 압박,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감각의 자극, 자신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참여형 공연**

참여형 공연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감정적으로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프로젝트는 시각, 청각, 촉각 등 서사 속에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 인식 과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2025년 공연정보**

단체명: (주)포밍부스

일시: 2025.8.15.(금)-8.17.(일)/ 9.19.(금)-9.21.(일)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 아르코꿈발극장

러닝타임: 70분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만 5세 이상 권장)

총 관객 수: 566명 (유료관객 536명, 무료관객 30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꿈발극장

참여진: 연출 김지수 작·영상디자인 방하윤 배우 한건우 송서영

무대 디자인 김민섭 조명 디자인 정서빈 사운드 디자인 서상재

홍보·디자인 최지수 소품 디자인 권지은 영상 감독 정한비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본 사업은 어린이 관객이 공연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배우·오브제·디지털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전시극을 안정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인터랙션 장치가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이야기 전개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높은 몰입과 흥미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체험 요소와 연기, 관객 구조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가족 단위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평문 QR  
감정의 언어를 찾는 밤  
김일송(연극평론가)



2차제작

어린이

**<안녕? 미래도시>**



어린이 날다  
사회적협동조합



단체소개

**어린이날다**

“아이를 닮은 예술가, 예술가를 닮은 아이”를 꿈꾸는 설립한 지 12년 되는 비영리 예술단체입니다. 축제의 독특한 공간 설치나 건축예술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목재를 재사용하는 <천만가지 놀이터>와 재난현장에 찾아가는 모듈형 팝업놀이터 <인디언 티피 아지트>가 대표적인 창작품입니다. 또한 <트리하우스 만들기>와 <안녕? 미래도시>같은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락처

E-mail [chaemin30@hanmail.net](mailto:chaemin30@hanmail.net)  
 Instagram [@children\\_flyground](https://www.instagram.com/children_flyground)  
 Homepage [www.childrenfly.org](http://www.childrenfly.org)

작품소개

50년 후 지구는 오랜 기후변화의 상처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텅 빈 길 사이로 험하게 불었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는 작고 여린 싹들이 속삭이듯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그때, 숲 속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잿빛 하늘 아래에서도 눈이 반짝였고, 손에는 오래된 도시에서 가져온 작은 씨앗 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까?”

한 아이가 말하자, 숲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드러운 바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버려진 나무를 주워와 뼈대를 만들고 나뭇잎을 덮어 작은 집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 대신 나뭇가지와 이끼로 만든 따뜻한 집이 세워지고, 플라스틱 놀이터 대신 땅과 바람과 빛으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숲의 언어를 배웠고, 숲은 아이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둘이 함께 만든 작은 마을은 마치 오래된 동화책 속에서 한 장면이 빠져나온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무너진 도시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폐해진 지구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다시 세운 것은 힘센 어른도, 거대한 기술도 아닌 숲과, 숲을 사랑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손, 작은 씨앗, 작은 웃음. 그것들이 모여 지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피어나면 지구도 함께 피어난다는 사실을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지요.

기획·연출 노트

50년 후의 미래도시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져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도 예측해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이번 작업에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해봅니다. 눈부신 미래가 한 축이면 황폐해져서 다시 숲에서 재건되는 도시가 다른 한 축을 형성합니다. 두 미래는 서로 공존합니다.

미래를 바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들과 함께 풍성한 대화를 나누며 미래도시를 만들어봅니다.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활용해 미래 도시를 상상하고,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창작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2025년 작품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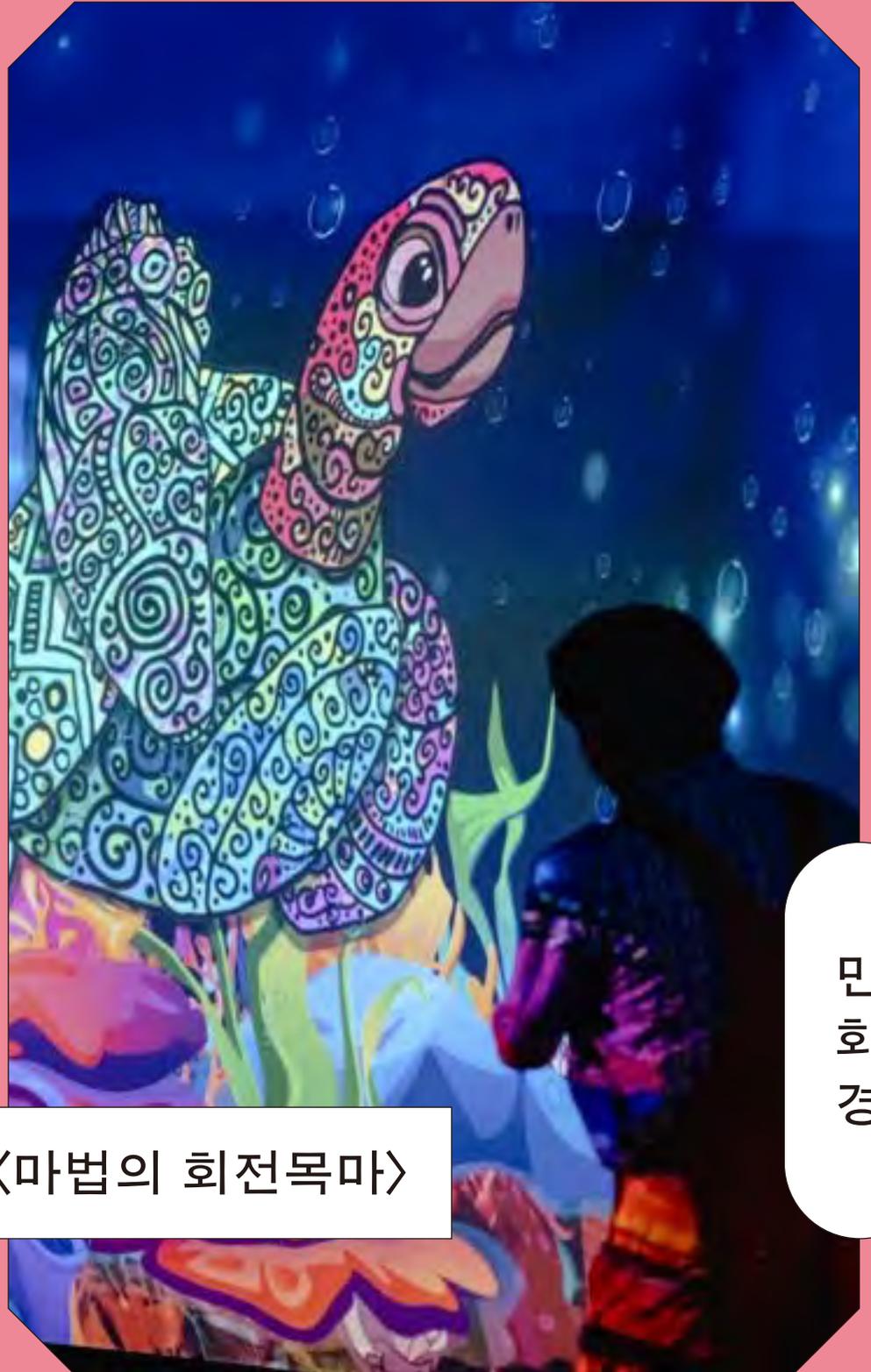
단체: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일시: 2025.4.19.(토), 4.26(토)/ 10.4.(토), 10.5(일)  
 장소: 마로니에공원  
 러닝타임: 120분  
 관람연령: 초등학교 2-6학년 어린이  
 총 관객 수: 80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한: 정채민, 김윤하, 손양옥, 심보경, 김철, 최하정, 한성희, 김정민, 정인호, 조난영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2075년, 50년 후의 지구 모습을 상상하고 구현하는 예술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도시 안에서 표현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주제를 고민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구성을 지님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아이들이 지금 내가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이 예술의 어떤 형식과 내용과 의미를 갖는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구성을 더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기후 위기와 환경 등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차제작

어린이



〈마법의 회전목마〉

만화경



단체소개

**만화경**

작곡가 신창렬과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으로 구성된 창작팀 만화경은 2015년 이후 전통과 동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장르 공연, 연극, 무용, 전시, 애니메이션 등을 꾸준히 선보여 온 예술단체입니다.

연락처

E-mail [iconplay@hanmail.net](mailto:iconplay@hanmail.net)  
 Instagram [@manhwagyeog](https://www.instagram.com/manhwagyeog)



작품소개

〈마법의 회전목마〉는 사랑과 우정, 이별, 자연 등 일상의 단면과 성장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1부 '기억의 회전목마'에서는 잃어버린 반려견 송이를 찾기 위해 회전목마를 타고 사계절을 넘나드는 어린 준이의 여정을, 2부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에서는 바다거북이와 다양한 바닷속 친구들을 만나며 즐거운 여행을 이어가던 중, 인간이 남긴 흔적들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작품은 원통형 스크린에 맵핑된 360° 애니메이션 영상과 풍부한 실감형 음향 효과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림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듯 몰입하는 '이머시브 씨어터(관객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무대 위에 마련된 별도 객석에서 관람하는 구조로, 회차당 40석 규모의 몰입형 공연으로 운영되었다. 총 3일간 7회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공연과 연계된 미디어아트 전시도 영등포아트를 2층 전시실에서 함께 개최되었다.

기획·연출 노트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예술을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360° 스크린과 입체 음향을 활용해 사랑과 우정, 자연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에피소드를 담은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연과 연계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영상·사운드·인터랙티브 장치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작품정보**

단체명: 만화경(Sound&Visual art)  
 일시: 2025.8.8.(금)-8.10.(일)  
 장소: 영등포아트홀 공연장(B1), 전시실(2F)  
 러닝타임: 50분  
 관람연령: 48개월이상 관람 가능  
 총 관객 수: 245명 (유료관객 107명, 무료관객 138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진: 연출 손상원 음악 신창렬 영상 김일현  
 극본 김혜연, 강보람 음향 정재윤 프로듀서 정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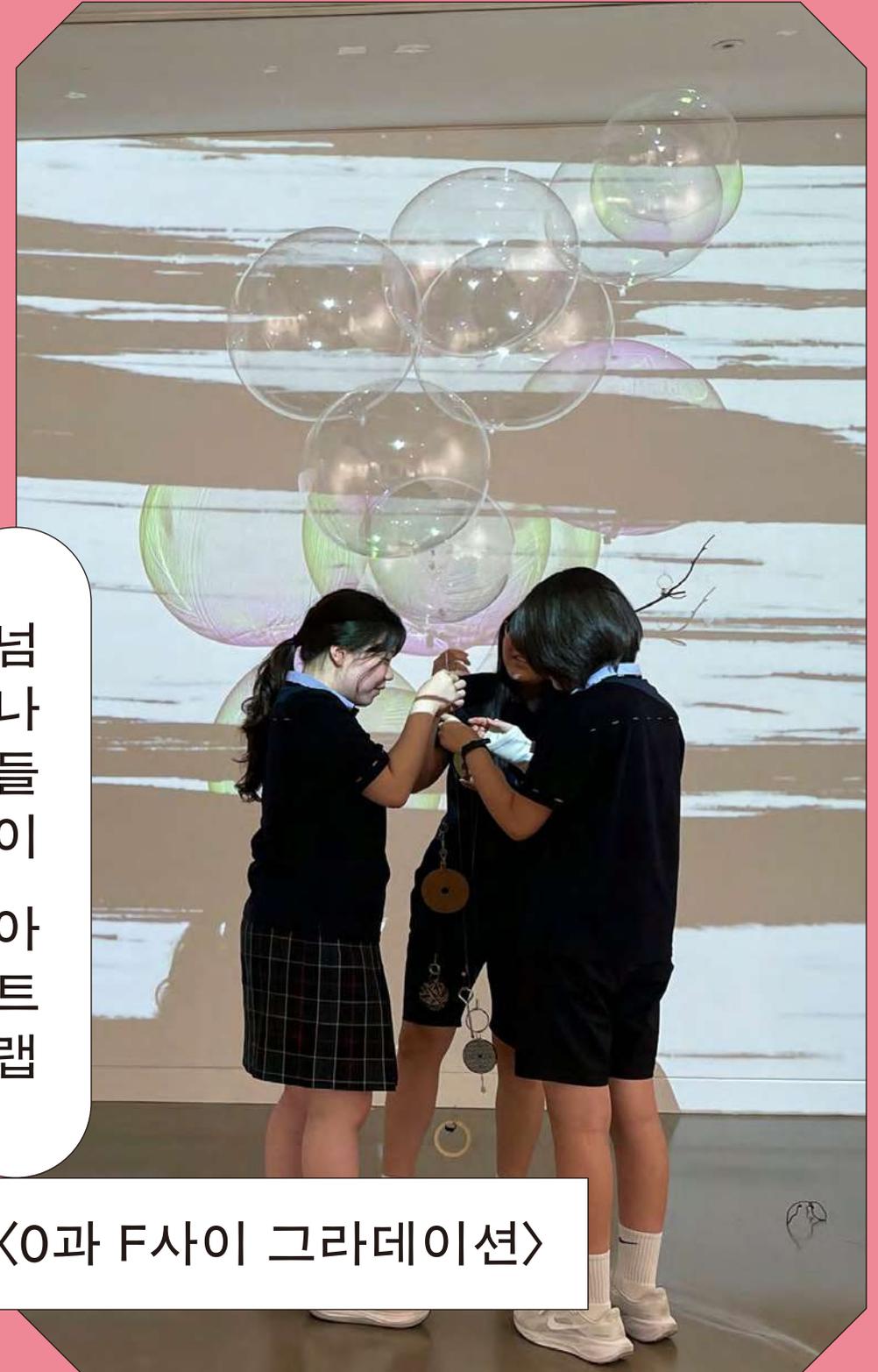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복합장르 공연으로, 어린이 콘텐츠에서 보기 드문 차별성을 지닙니다. 360도 원통형 스크린과 회전목마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활용하여, 소수의 배우로도 신선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추가 에피소드 등 새로운 서사를 통해 어린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 점도 돋보입니다. 영상 중심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어린이 관객이 자연스럽게 예술 공간에 몰입하도록 한 예술적 시도와 기술융합의 가능성이 확인되며, 어린이 관객과 성인 관객이 각각 다른 층위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가족 단위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신작제작

청소년



넘나들이 아트랩

<0과 F사이 그라데이션>

단체소개

넘나들이 아트랩

넘나들이아트랩은 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감각, 생각, 가능성의 공간을 탐구하는 예술단체입니다.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공연, 문학,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며, 전시, 워크숍,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왔습니다. 학교, 지역공간, 미술관 등 다양한 대상과 장소에서 활동하며, 각자의 맥락에 맞는 예술경험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뚜렷하게 나뉘는 경계보다는, 그 사이의 흐릿한 지점에서 생겨나는 상상력과 만남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품과 사람, 공간과 시간, 교육과 예술 사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관계와 감각의 장면을 실험합니다.

연락처

E-mail numnadri@numnadri.com  
Instagram @numnadri\_artlab  
Homepage <https://numnadri.com>



작품소개

사이 공간을 걷는 감각 여행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밝음과 어둠, 열림과 닫힘, 가벼움과 무거움처럼 둘로 나누어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틈새에는 고유한 색과 소리, 감정과 풍경이 존재합니다. <O과 F 사이 그라데이션>에서 'O'은 000000(블랙), 'F'는 FFFFFFFF(화이트)를 뜻하며, 그 사이에 놓인 무수한 색조의 변화는 단절이 아닌, 스며들고 이어지는 사이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분법을 넘어 그 사이 공간을 걷고 탐색하며, 관객 스스로 '사이'를 새롭게 감각하고 사유하도록 제안합니다.

섹션1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는 관객이 에어플로터(사물 오브제를 매단 투명한 헬륨풍선)의 무게를 조정해 공기 중에 부유하도록 만듭니다. 떠오르려는 힘과 가라앉으려는 힘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균형을 몸으로 느끼며, 스스로 떠오르게 한 풍선에 자연스럽게 감정과 의도를 실게 됩니다. 섹션2 '열림과 닫힘 사이'는 미로처럼 구성된 공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각자의 속도와 감각으로 움직이며, 길을 찾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빛과 그림자, 벽과 창, 그리고 관객의 몸짓이 함께 어우러지며 작품은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완성되고, 관객의 경험 자체가 작품이 됩니다.

이 전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관객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을까?”

기획·연출 노트

<O과 F 사이 그라데이션>전시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경계'와 '사이공간'의 개념을 빛, 무게, 패턴, 시선 등의 감각적 요소를 통해 경험하도록 설계된 참여형 전시입니다. 밝음·어둠, 가벼움·무거움, 열림·닫힘 등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되는 세계 사이의 '틈'을 직접 체험하며 참여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감각·생각·선택을 확장해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 탐색, 상상 기반 해석, 관계적 감수성 증진을 전시 경험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전시정보**

단체명: 넘나들이아트랩  
 일시: 2025.9.10.(수)-9.20.(토)  
 장소: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  
 총 관객 수: 478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랑문화재단  
 참여인력: 기획 및 작가 김희경, 이유정  
 온라인전시: <http://inbetween.kr>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청소년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적 참여가 가능한 동시에 연결(길만들기·이야기·토론 등)의 가능성이 열린 전시스토리텔링과 동선을 설계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공간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전시·참여콘텐츠를 변형하여 운영함으로써 작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전시 QR

작품읽기 QR

비평문 QR

다음 사람들을 위한 미술 넘나들이 아트랩 <O과 F사이 그라데이션> 오지은(미술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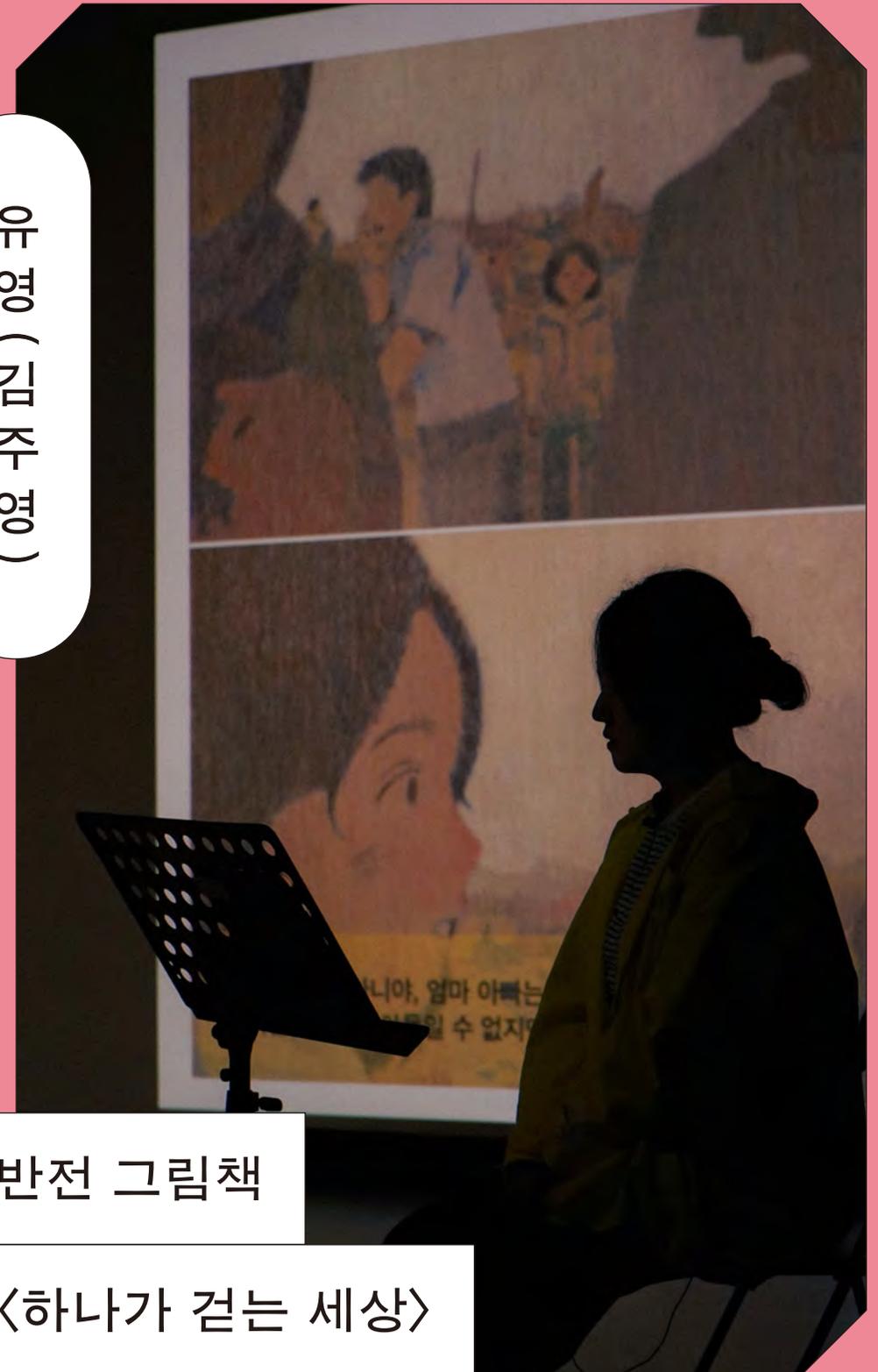
신작제작

어린이

유영 (김주영)

반전 그림책

<하나가 걷는 세상>



단체소개

연락처

**유영(김주영)**

고양이 딸과 사람 한 명과 함께, 서귀포의 변화무쌍한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다.

E-mail [writer.yuyoung@outlook.com](mailto:writer.yuyoung@outlook.com)  
Instagram [@littlesnowman.kr](https://www.instagram.com/littlesnowman.kr)  
Homepage [https://blog.naver.com/littlesnowman\\_book](https://blog.naver.com/littlesnowman_book)



작품소개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어린이의 이야기**

그림책 『하나가 걷는 세상』은 전쟁 속에서 작은 보물들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여자 어린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집 마당에서 천천히 자라던 레몬나무처럼, 하나는 상실을 안고도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쓰레기통에서 구조한 자투리인형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이 그림책은 어린이의 회복력과 사랑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일의 조용한 힘을 탐구합니다. 하나는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 걸음은 깊은 상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랍어로 '기쁨(هناء, Hanā)'을 뜻합니다. 그 기쁨을 향해, 레몬나무가 자라는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기획·연출 노트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것이 취미입니다. 『집단학살 일기』라는 신간 제목이 눈길을 끌어 대출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책을 읽기 전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정보나 없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의 참사는 '과장'도 '허구'도 아닌 '실재'였습니다. 전쟁을 겪지도 않은 내가 이곳의 이야기를 써도 되는지, 맘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작가 로아 샤말락이 전하는 '우리를 영웅으로 부르지 말라'를 읽고서야, 저는 기억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망설임 끝에, **살아남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책이라는 물성으로 담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책 『하나가 걷는 세상』은 팔레스타인의 여자 어린이 '하나'와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투리인형'이 주축을 이뤄 진행되는 서사입니다. 전쟁과 분리장벽이라는 무거운 소재는 김다운 삽화가가 손으로 한 장 한 장 그린 색연필화를 통해 손에 닿을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나와 함께 걷는 자투리인형은 버려진 천 조각들을 바느질로 키워낸 존재입니다. 전쟁으로 조각난 삶들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을 담고 싶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있는 한, 두 주인공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했던 2023년 10월 기획돼 2년 후 가을에 출간됐으며, 오디오북으로도 제작했습니다. 비록 기획 노트를 쓰는 지금도 하나가 살고 있는 곳의 장벽은 굳게 닫혀 있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어린이는 하나와 자투리인형이라는 친구에게 마음을 모은다는 것어요. 앞으로 『하나가 걷는 세상』이 한국을 넘어 여러 언어로 확장돼 전 세계에 닿기를 바랍니다.





**2025년 도서정보**

제목: 하나가 걷는 세상

출판사: 꼬마눈사람

발간일: 한국어/영어 오디오북 8.11.(월), 그림책 9.5.(금)

분류: 그림책

분량: 60쪽

크기: 210×297mm

참여진: 사업 및 프로젝트 기획/글작가 유영(김주영)

그림책 삽화가 김다운 그림책/오디오북 주제음악 뮤지션 이동열

그림책 책임편집자 고은희 그림책 디자이너 김지수

한국어/영어 오디오북 연출자 장은아 한국어 오디오북 낭독성우 이보희

영어 오디오북 낭독배우 그림책 낭독회 배우 윤채원

해외수출용 샘플북 디자이너 김규림

**평가모니터링 주요 의견**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린이의 생명력과 연대를 담은 작품으로, 그림책과 음악이 결합된 형식을 지닙니다. 도서의 영향력이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른 면이 있습니다. 음악과 그림책의 접목이라는 의도와 시도는 유의미하지만, 그림책을 읽을 어린이가 QR코드를 이용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동기를 고민해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낭독회에서 음악과 함께 그림책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책의 주제에 대해 저자와 관객이 함께 토의하는 낭독회가 기획 된다면 더욱 유의미한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소개 및 주요통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이란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신작, 2차제작 작품이 안정적으로 제작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관객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춘 작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신작제작’ 작품에 7억 원, ‘2차제작’ 작품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29개의 어린이 청소년 예술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극장인 아르코꿈발극장과 연계함으로써, 작품의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더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지원 건수

연도	선정 건수	담당부서	지원유형별 선정 건수			지원 총액 (단위 천원)
			(창작 준비)	(제작 준비)	(퍼실리테이터)	
2021	42	지원총괄팀	20건	21건	1건	478,000
2022	60		36건	23건	1건	1,400,000
2023	53		29건	23건	1건	1,400,000
2024	16	극장운영팀	16건			665,000
	10		10건			315,000
2025	29		16건	13건		1,300,000

2025년도 장르별 대상별 지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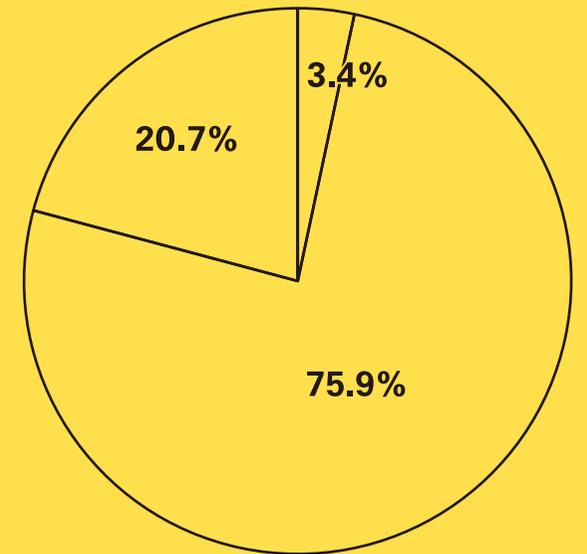
장르별

- 연극뮤지컬(15건, 51.7%)
- 무용(5건, 17.2%)
- 음악(2건, 6.9%)
- 전통예술(2건, 6.9%)
- 시각(1건, 3.4%)
- 복합(4건, 13.8%)



대상별

- 영유아(1건, 3.4%)
- 어린이(22건, 75.9%)
- 청소년(6건, 20.7%)



평균 공연일

4.4 일

평균 관객 수

335 명

(유료 164명, 무료 161명)

평균 판매좌석 수

118.8 석

평균 객석 점유율

47.2 %

평균 티켓 금액

27,647 원

최대 티켓판매 공연 월

12 월, 14.3백만원

8 월, 12.8백만원

최대 티켓판매 공연 요일

일요일 16.4백만원

토요일 16.2백만원

최대 티켓판매 공연 시간

11시 1,704석

14시 1,566석

- **회의일시:** 2025년 12월 20일(금)-21일(토)  
20일(금) 신작제작, 21일(토) 2차제작
- **회의장소:**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공혜진, 김영배, 배근영, 심상욱, 윤동희, 이지은, 임홍석, 장성은, 함형식, 홍영주

본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고 우수한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응모 작품의 수가 증가한 것을 통해 본 사업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는 어린이 청소년 작품이 관객을 만날 기회와 창작진의 창작 역량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복합장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공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심사 기준의 구체성을 갖고 우수한 작품이 발굴하여 예술적 가치 실현하도록 장르 통합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총 지원건수 403건 중 신작과 2차 제작 유형 각각 237건, 166건이 접수되었고, 1차 심의를 통해 23건과 18건을 선정하여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작 16건, 2차 13건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신작의 경우, 작품의 창작의도와 소재의 참신성, 표현 방식의 예술성, 기획의도의 명확성, 주요 관객에 대한 고민, 창작자의 역량 및 제작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차 제작의 경우, 기존 작품의 성과 및 작품성, 2차 제작 발전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예산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선정의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하였으며, 동일조건 또는 동점의 경우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제출자료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예술적으로 작품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부터 이주민, 장애 등의 어린이·청소년 예술에서의 아젠다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어린이·청소년 예술의 시청각적 확장을 꾀하는 작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소외된 지역 아동에 관한 생각, 구체적인 관객층을 고려한 홍보계획 등 어린이·청소년 예술의

확장을 다 각도로 바라보고 고민하는 창작진들의 진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작을 개발하고 2차 제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관점보다는 아젠다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지원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이 다소 어긋난 지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 내용을 본 사업의 취지와 창작자의 의도를 확인하며 심의하는데 숙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아닌 본 지원사업을 위해 작품의 대상을 변경한 사업들도 있어 여전히 어린이·청소년 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도 이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층면접을 통해 단체가 구현하고자 한 작품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되고 제작을 계획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도한 예산계획을 작성하여 창작개발 계획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의 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의 항목의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항목의 예산이 높게 편성된 경우 당위성을 확보하거나 감액 시 대체방안에 대해서도 인터뷰 심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개발(발전)계획과 예산계획의 적절성과 충실성 또한 심의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심의에 반영하였습니다. 2차 제작 유형의 경우, 영상을 활용한 시각적 효과 보안을 시도한 다수의 단체가 있었으나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장르의 본질과 어긋나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종선정 과정에서 지역 예술단체들의 균형 지원을 위해 심사숙고하였으나 본 사업의 지원목적과 방향에 미치지 못해 신청 건에 비해 더 많은 지역예술단체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의에 논의된 작품들 모두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한 전개, 동시대 어린이청소년 예술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최종선정의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최종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제작 작품의 공연 예정 횟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금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모두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지원 예산에 비해 적은 회차의 공연을 제안한 다수의 작품을 보면서 단순 창작의 관점을 넘어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 관객과 만나고자 하는 고민도 깊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단회차 공연으로 작품을 실험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회차 공연으로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어린이·청소년 전문예술단체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지원의 목표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정 단체의 제작계획에 대해서는 숙고와 변화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작의 수가 상당히 많아 어린이·청소년 예술지원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예술을 대하는 예술가의 진정성과 참신한 소재 개발 및 독창성의 관점에서 향후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기대되며, 최종선정 작품들이 어린이·청소년 예술지평 확장에 기여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 회의일시: 2026.1.15.(목) 14:00-16:30
- 회의장소: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의실
- 평가위원명(가나다순): 공혜진, 김영배, 심상욱, 윤동희, 장성은, 홍영주

2025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을 돌아보며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2025년도에 지원되었던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아젠다들이나 새롭게 발견되는 연출적인 시도들을 함께 공유하며,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의 지표와 방향성을 함께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평가모니터링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관점에서 창작된 작품과 오브제의 활용

- 어린이·청소년 예술작품은 창작과정의 전반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창작의 과정에서 예술가로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더 매몰되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보며 창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영유아인형극 <렘>은 어른의 입장에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기보다 직접적으로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교적 긴 리서치 기간이 작품의 완성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형과 천을 활용한 작품의 미장센 역시 단순한 시각적 장치에서 머무르지 않고 서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 오브제의 활용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극 <동화동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굴뚝 안의 사다리라는 오브제를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와 결합된 요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억압’이라는 주제로 확장된 서사 역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예술로의 이행

- 릴렉스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의 시도 또한 주목해 볼만합니다. 릴렉스 퍼포먼스는 장애 유무를 넘어 어린이를 포함한 온 가족, 나아가 모든 관객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는 공연 방식입니다. <어느날 납작해진 아이들과 끝으로 달려가는 할머니>는 릴렉스 퍼포먼스를 통해 ‘죽음’이라는 주제가 멀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존재하는 이야기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어른의 시선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았습니다. 어린이의 관점으로 시점을 조금 더 이동해 고민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모두를 위한 예술 국악 인형극 <뽕>의 사례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수어 통역을 맡은 배우들이 출연진과 동선을 공유하며 함께 연기했고, 대사를 듣지 않더라도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언어가 전달될 만큼 몰입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장애 단체와 연계해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초청해 공연을 진행한 점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적 장치의 활용이 돋보였던 무용, 그리고 어린이교육전문가 매칭의 필요성

- 무용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디어 활용이 두드러졌으나, 영상 중심의 연출로 인해 관객과의 소통이 일방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다크서클즈컨템포러리의 어린이무용극 <부엉이의 안경>도 첫 시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흥미롭고 완성도 있게 다가왔습니다. 소극장에서 창작되는 발레 작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 무용 공연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충족되는 지점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연극·뮤지컬 장르의 경우 교육 전문가가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무용 분야는 표현 방식에 비해 어린이 관객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는 구조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였습니다. 향후 본 지원사업에서 어린이 교육 전문가와의 매칭을 지원한다면 작품의 완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에서 강점을 키워가고 있는 어린이예술

- 어린이 풍물연희극 <풍물이 똥똥 소고라서 좋아>는 경남 함안군에서 공연된 작품이었는데요. 지역 기반 어린이 예술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공연임에도 대극장 앞에 수십 대의 유치원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인근 진주시 등 주변 지역에서 관객이 유입된 점도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해당 작품은 특정 지역 내 수요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주라든지 인근 중소도시까지 관객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며 지역 공연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이 많은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의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을 위한 제언

그렇다면 올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지점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파트너로서의 공연장

- 어린이·청소년 관객 모객의 어려움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SNS(인스타그램 등)를 중심으로 관객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팔로워 수를 보았을 때 실질적인 관객 유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장은 단순 대관을 넘어 마케팅·홍보·관객 개발의 파트너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공연장과 전시관은 '처음 접하는 문화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간 경험 자체가 장기적인 문화예술 향유의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이 정책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한편, 영유아·어린이 공연의 경우 통상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관람에 적절한 시간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의 양육 환경상 평일에는 교사 인솔 관람, 주말에는 부모 동반 관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린이·청소년 공연의 관객 개발과 마케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관람 대상, 장르, 요일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관람 시간대·회차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과 공유하는 방식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은 관객 점유율을 주요 목표로 삼기보다는, 미래 예술에 대한 도전, 예술적 가치 창출,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린이 관객 비율이 20%에 이른다면, 접근성이 낮은 대학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예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객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 이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최소한의 공연 회차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말 기준 총 3회 내외(토 2회, 일 1회), 대극장의 경우 최소 2회 이상 운영될 때, 단발적인 공연을 넘어 새로운 시도가 공연 과정 속에서 의미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모니터링과 좌담회를 통해 창작자들의 작업과 의미있는 시도들을 확인하며 다시 한 번 지원사업의 방향과 동력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 선정자 명단 (가나다순)

ARKO Arts Grant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연극/뮤지컬**

극단 성시어터라인, 극단21, 극단 즐거운사람들, 극단 치악무대,  
동그라미공방,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시작과끝, 작은극장H,  
장이주(프로젝트그룹 응시), 정Tree프로젝트,  
주식회사 아트플랫폼 동화,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  
창작집단 인사리, 창작집단LAS, 해의 아이들

**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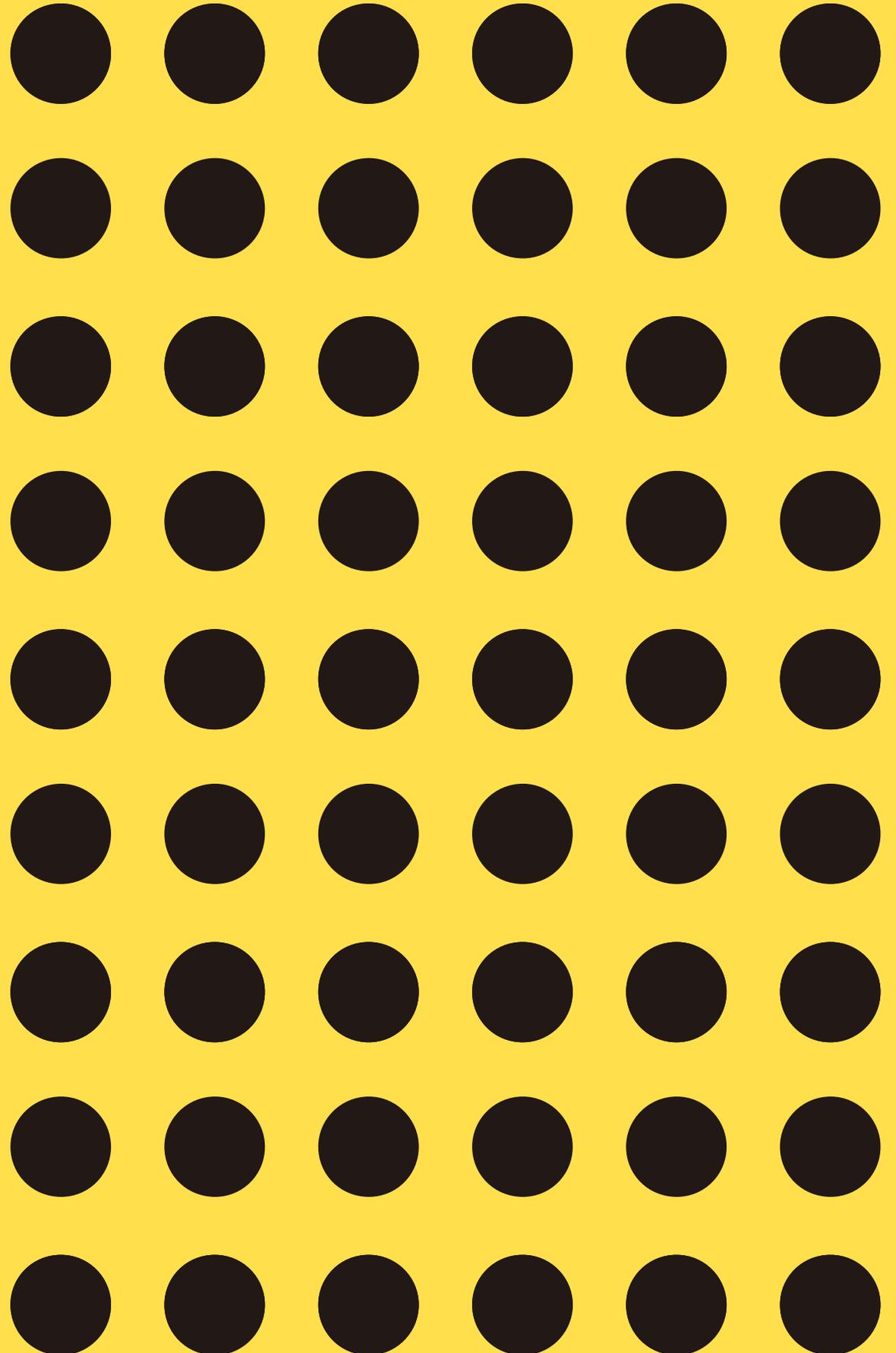
(사)서울발레시어터, 고블린파티, 김하얀새,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댄스, Dance Research & Practice Lab

**음악, 전통예술**

영아츠컴퍼니, 오페라팩토리, 연희공방 음마갱갱, 풍물패 청음

**시각, 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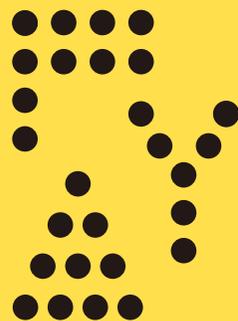
유영(김주영), 넘나들이 아트랩, 만화경,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포밍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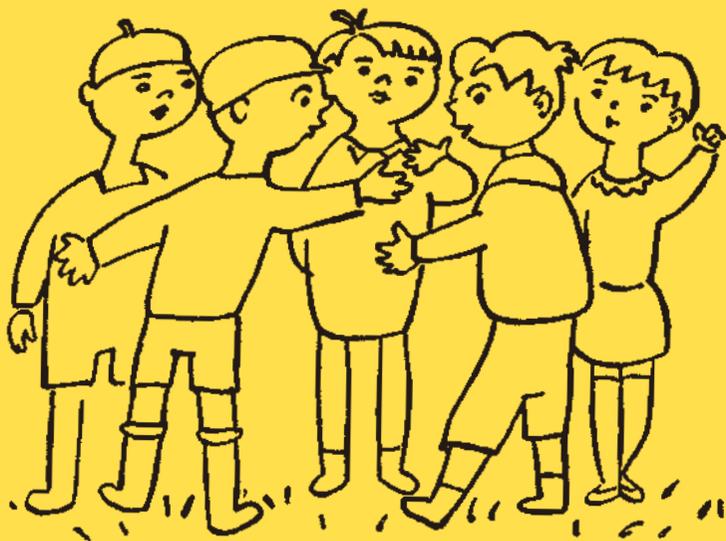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작품집  
어린이와 어린이였던 당신을 위해

---

기획/편집 예술극장 극장운영팀 박영준	인쇄 2026년 2월 27일
예술극장장. 강량원 극장운영팀 팀장. 홍승욱 대관. 김선욱, 정준원 홍보. 이재일 고객지원센터. 편영란 하우스. 이재이 티켓. 김지수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박영준 무대예술팀 팀장. 진용남 무대. 신동환 조명. 신동우 음향. 허강진	발행일 2026년 2월 27일
발행인 정병국	ISBN 978-89-6583-655-1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8길 7 아르코예술극장	디자인 6699프레스
책임자 홍승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작품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해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arko.or.kr	





**연극/뮤지컬**

**극단 성시어터라인**

**극단21**

**극단 즐거운사람들**

**극단 치악무대**

**동그라미공방**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시작과끝**

**작은극장H**

**장이주(프로젝트그룹 응시)**

**정Tree프로젝트**

**주식회사 아트플랫폼 동화**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

**창작집단 인사리**

**창작집단LAS**

**해의 아이들**

**무용**

**(사)서울발레시어터**

**고블린파티**

**김하얀새**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댄스**

**Dance Research &  
Practice Lab**

**음악, 전통예술**

**영아츠컴퍼니**

**오페라팩토리**

**연희공방 음마갱갱**

**풍물패 청음**

**시각, 복합**

**유영(김주영)**

**넘나들이 아트랩**

**만화경**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포밍부스**

ISBN 978-89-6583-655-1 (03600)

